

2차 송환,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 9월2일, 비전향장기수 송환 5돌기념 및 2차 송환촉구대회 참가자 기념 사진.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 신동철 선생을 만나다 김명희 • 5 / 일립니다 • 6 / 감옥에서 온 편지 강태운 • 7 / 부치지 못한 편지 · 송환장기수 가족 편지 김송단 • 8 / 8.15민족대축전참가기 이용준 • 10 /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다 • 12 / 이런회원 · 강성철 회원을 찾아서 임미영 • 13 / 시사만평 • 15 / 회원마당 · 산행기 서미라 • 16 / 해외기고 • 6.15 5돌기념 민족통일대축전 참가기 이철 • 18 / 일립니다2 • 23 /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5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7 / 재정보고 • 35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6

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u.or.kr 이-메일: yangsimu@hanmail.net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더 이상 미루어선 안된다

권오현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대표

불 역사적
불 인 6.15

공동선언 발표 5년
이자 비전향장기수
송환 다섯 돌을
맞게 되었다.

신념의 고향을
게 된 기쁨으로, 차

마 헤어지기 서러워서,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던 그 날의 감동적
장면은 5년이 지난 오늘에도 더욱 새롭기만 하다.

그들은 결코 많은 수도 아니었고 세상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름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분들
이 세상을 놀라게 했고 인류의 양심을 흔들었으며 민
족이성을 일깨웠다.

수십 년을 0.75평 독방에 갇혀 있었지만 통일조국
에 대한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왔었다. 수많은 사
람이 죽어갔던 잔혹한 고문 등 강제 전향공작에서도
처음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땀땀하게
옥문을 나서 신념의 고향으로 가는 길을 그 누구도 막
을 수 없었다.

비전향장기수! 그들이 있었기에 인류 양심의 존귀
함은 재확인됐고 민족의 존엄성과 자주성은 더욱 빛
날 수 있었다. 그 분들이 구태여 남이 아닌 북을 선택
해서가 아니었다. 외세 간섭 없는 자주통일의 신심을
지켰고 어떠한 잔혹한 강제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
치를 지켰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송
환되는 날은 남북 모두의 축복이면서 인도주의정신
과 동포애의 승리로 오래오래 두고 기념해야 할 날이
었다. 그리고 그 날의 역사적 순간이 있기까지엔 위에
서 말했듯이 그 분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었고 이를 받아 안은 나라 안팎의 수많은 양심세력의
목소리도 있었으며 더욱 빼놓을 수 없게 된 것은 바로
6.15남북공동선언이었다.

그래서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6.15공동선언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비전향장기수가 외세
와 분단에 맞선 자주통일투쟁과정의 필연적 산물(존
재)이었다면 6.15공동선언 또한 불신과 대결시대를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그리고 자
주와 통일로 가는 이정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6.15
공동선언이 있기 까지 우리의 현대사는 오욕과 질곡
의 연속이었다.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조국광복을
이룬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외세는 우리의 국토를 동
강내고 수천 년 한 핏줄 같은 문화로 이어온 단일민족
을 갈라놓았다. 그리하여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강대
국의 패권적 세계전략에 강제 편입되어 동족상잔의
비극마저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언제까지나 외세에 질질 끌려
다니는 강요된 역사의 수용자가 아니었다. 비틀린 역
사와 오욕의 시대를 청산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신세벽을 알리게 되었다. 바로 7.4남북공동
성명이었고 이를 재천명하며 7천만 겨레에게 민족적

금지과 희망을 안겨준 6.15공동선언이었다. 그리고 이 공동선언에 의해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녜 고향으로 갈 수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날의 벅찬 감동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5년 전 그 날의 영광만을 기릴 수 없게 되었다. 9.2 1차 송환 이후에 뒤따라야 할 과제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첫째, 비전향장기수 송환의 계속 사업이었다. 이는 1차 송환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송환신청을 못했던 아직도 상당수에 이르는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였다. 둘째, 1차 송환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던 정순택, 정순덕 노인 등,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 전향당한 사람들 가운데 송환을 희망하는 분들의 송환문제였고 세 번째는 9.2 송환으로 남겨진 가족들의 재결합문제였다. 이는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당시 통일부 관계자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과제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송환에서 미처 송환신청을 못했던 비전향장기수와 2001년 2월 5일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며 강제 전향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2차송환을 요구해 온 불들이 오늘 현재까지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난 5년 동안 성명서, 기자회견,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수없이 주장되어온 2차 송환의 당위성은 분명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이다. 비전향장기수로 송환을 희망하는 한 지체 없이 실행되어야 했다. 그리고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다. 때문에 비전향으로 간주, 희망자는 조건 없이 송환해야 했다.

참고로 강제 전향이 원천무효임을 주장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상 양심의 자유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다.
- ② 사회안전법, 사상전향제도, 준법서약제도 등이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으로 폐기되었다.
- ③ 국가기관인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사상전향제도의 위헌성과 강제전향의 위법성을 밝히고 강제전향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를 권했다.
- ④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는 78차 회의에서 사상전향제도가 국제인권규약 등에 위배된다고 결의했다.
- ⑤ 정부당국에서도(공안당국) 이른바 전향자들을 실질적으로 전향한 것으로 보지 않고 출소한지 20여년이 다 되고 있어도 보안관찰법으로 감시 통제하고 사면 복권도 하지 않는 등 비국민으로 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관련 전쟁포로 부문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포로는 처음부터 구속기소 되거나 고문 자백 강요 등 부당한 대우와 재판을 받고 사상전향을 강요받아서 안 될 신분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포로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정전협정 바로 전 불법적으로 감행된 이른바 27000여명의 반공포로가 아니다. 그들은 전쟁상태에서 퇴로가 차단되어 후방에서 유격전을 벌이다 체포되어 포로수용소에 갇혀있던 국제법에 배치된 재판을 받고 수십 년 감옥을 살았던 국제법이 규정한 전쟁포로였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포로에 대한 국제법과 정전협정이 규정한 대로 정전 뒤 60일 안에 송환되었어야 할 신분이었다.

이제 6.15공동선언 5년이 되면서 남북관계는 엄청

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금강산을 찾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긴지 오래고 한 해 동안 수만 명이 남북을 오가고 있다. 올해 안에 동서 철길이 이어질 것이고 개성공단에서 남북 노동자가 만든 제품이 수출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고 얼마 뒤 '이제는 남북 사이에 체제경쟁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듯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에서 화해와 단합을 위한 각종행사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일로 평양에서 있었던 6.15공동선언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회와 서울에서 있었던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에 민간부문 뿐 아니라 당국 대표단까지 함께 하였는가 하면 이른바 반체제 친북인사로 기피 당했던 해외통일운동인사들이 많게는 5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북측 대표단이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를 방문했으며 전, 현직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런가 하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분단 뒤 처음으로 화상상봉, 휴전선 일대 선전물 제거, 군사직통전화개설, 북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등 분단과 대결시대의 끝장을 알리는 놀라운 모습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8.15대축전 개, 폐막식과 본 대회 등에서의 당국대표단을 포함한 남북해외 대표들의 연설은 누가 남측이고 누가 북측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강대국 틈바구니속에서 희생물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우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 당당한 자존의 나라, 자주 의 나라, 통일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요구 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축사)고 했으며 '우리민족끼리에는 친북도 친남도 따로 없고 적화와 흡수도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은 본래부터 갈라져 살아 온 북과 남이 아니라 반드시 합쳐야 할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운명공동체로서 민족공조는 민족의 생존방식이다' (김정호 북측 준비위 부위원장), 특히 정동영 장관은 '이제 우

리는 본격적으로 분단과 정전상태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 것인가!

이제 민족의 화해와 협력, 자주와 평화 통일로 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법과 제도, 관행 등 분단시대의 잘못된 장치들을 걷어내야 한다. 또한 불신과 대결시대에 빚어진 민족의 아픈 상처를 말끔히 치유해야 한다. 그 아픈 상처 가운데 이제까지 말해온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가 있다. 그래서 6.15공동선언에서도 인도주의의 문제 가운데 맨 먼저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내세웠다.

비전향장기수 송환 다섯 돌을 맞은 오늘 특히 통일부 장관과 대한 적십자총재에게 호소한다. 6.15, 8.15 행사에서 당국 대표단장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연설로 큰 박수와 환호를 받는데 대해 답을 주어야 한다. 비전향장기수 30여명 송환으로 남북사이 우열이 생기고 존엄에 상처 날 일 없다. 주무장관으로써 선임장관들이 그러했듯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한완상 대한 적십자 총재는 통일원 장관때 인민군 종군기자 이인모 노인을 송환했을 뿐 아니라 평소에 비전향장기수 석방과 송환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왔었다. 사무치게 그리운 마음으로 고향과 가족을 찾는 이들을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이해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송환되도록 통큰 결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정정합니다

166호 우리의 주장 제목은 '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 학생들에게 자유를'입니다.

능력대로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해 투쟁했다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입니다

김명희 | 유뉴스기자



열여섯, 열 여덟 꽃다운 나이에 오로지 조국통일을 위해 살아온 선생님들의 머리에 하얀서리가 내려앉았다.

모진 고문으로 얻은 육체적인 상처는 이제는 아물어 흔적만 남겨져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생생해 조금만 건드려도 이내 분노와 눈물이 흘러내린다.

신동철(78세) 선생. 선생은 인터뷰 내내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탓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통일운동에 기여하고 싶지만 지금도 못하는 게 있다”며 말이다. 그러나 선생은 ‘능력대로’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해 투쟁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경남 함양에서 빨치산 활동으로 이른바 ‘비상조치령 위반’으로 구속돼 10년간 옥고를 치른 신동철 선생을 만나보았다.

지난 8월 29일(월) 경술국치일 95주년이 되던 날 해방 60주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우리 민족 미완의 숙제인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갈 1차 명단이 세상에 발표됐다.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인 신동철 선생은 “미국 놈들이 들어오면서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해 운영했다는 것 자체부터 틀려먹었다”며 “미국 놈들이 지시해

서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산시켜 버린 일을 다시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린다”고 말한다.

이처럼 우리 현대사는 선생에게는 자신의 역사이자,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과거로 새겨져 있다. “만주 군관학교에서 천황에게 맹세한 박정희가 쿠데타에 의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 그가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생각하면 말도 못하다”며 몸서리친다.

선생은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에 태어났다. 지리산 바로 밑자락이 선생의 고향. 선생의 말에 의하면 경남 함양은 일찍이 6.25전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많이 해 온 동네이며 이러한 분위기에 선생은 20살이 되던 해인 47년 남로당 가입을 하게 된다.

6.25전쟁이 터지자 선생은 곧바로 의용군으로 입대 자원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으로 개시하자 집으로 내려오던 중 고향에 있던 경남도당을 따라 입산하게 된다. “그때는 집집마다 토벌을 해대는데 건딜 수 있어야지” 이것이 선생이 입산한 계기다.

“솔직히 나는 공부도 못했고, 아는 것도 없어 입산 후 도당 연락과에서 사무를 볼 수 없어 덕유산 등 연락소 내 업무를 보다가 나중에는 식량을 운반하고 보급하는 일을 했었지.”

선생은 51년 겨울 지리산 토벌공세가 점점 심해질 무렵 열병에 걸려 하는 수 없이 환자터에 묵게 되었고 거기서 그만 토벌대에 의해 잡힌다. “담요를 뒤집어쓰고 드러누워 있는 나를 무작정 토벌대가 남원까지 끌고 가더라고. 아픈 몸을 이끌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광주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선생은 처음엔 ‘사형’을 받았고, 두 번째 재판에서 10년 구형을 받았다. 그 후 선생은 10년동안 전주, 대전, 수원 구치소를 옮겨가며 가혹한 고문을 받으며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선생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향’이다. 전주 구치소 시절 매일 밤낮으로 불려가 몽둥이질에 시달렸던 그는 결국 전향서에 도장을 찍었다.

“어느 날 그것들이 나를 잡범방에 집어넣고는 잡범

들이 나를 괴롭히도록 한 거야. 밤마다 매질에 결국 나는 형식적으로 전향하겠다고 한 것이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선생은 이 사실을 밝히면서도 ‘아직도 이가 갈린다’며 울분을 참지 못한다.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로 시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장 억울하게 생각한다”며 말이다.

감옥에서 10년을 보낸 후 선생은 빨치산 장필순 여사와 결혼을 한다. 장필순 여사는 선생이 입산했을 당시 지도급이었던 장재희 선생의 여동생. “산에서는 나만 얼굴을 알았지.”라며 쑥스러워하는 선생의 말에 사모님은 “남들은 산에서부터 알았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연애한 줄알지만 나는 손 한번 안 잡아보고 결혼했다”며 억울(?)해 한다.

여순항쟁 때 가장 먼저 총살을 당한 오빠 장재희 선생의 죽음을 보고 원수를 갚기 위해 총을 드는 근위대에 자원입대한 사모님. 사모님도 결국 토벌대에 의해 잡힌다. 이 두 사람의 두 번째 운명적 만남은 바로 감옥이었다. 당시 신 선생은 감옥에서 세탁 일을 하며 여사와 남사를 오가며 다시 ‘연락업무’를 보았고, 사모님은 마침 광주에서 이감된 상태에서 신 선생이 ‘낮익은’ 장필순 여사를 알아본 것이다.

이들은 출소 후 함께 가정을 꾸렸다. 어떻게 보면 신동철 선생과 부인 장필순 선생은 오빠 장재희 선생이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일지도 모른다.

두 선생은 결혼 후 2남2녀의 자식을 두었다. “농촌에서 살다가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이를 먹고 사회에 나왔는데 막상 사회경험도 없으니 참 살기가 고달팠어요.”

매일이면 찾아와 감시하는 보안과 직원들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한다. 선생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했던 직업은 구청 청소부. 그것도 50이 넘어 퇴직되어 난지도 펄프장 경비로, 하수구 청소로 품을 팔아 자식 넷을 가르친 것이다.

내일 모레면 여든을 바라보는 선생의 소원은 ‘통일’이다. 선생에게 ‘통일’은 간절한 그 이상의 것이다. “내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남북통일입니다. 남과 북이 어서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는 것이 저 이상 바랄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는 날까지 건강해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주면 더 바랄 게 없지요.” 선생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과거 선배들의 뜻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한다. “젊은이들도 같은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

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한다.

이번 친일명단 발표가 보여지 듯 역사의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질곡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온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하루 빨리 잘못된 역사가 청산되고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알립니다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 조국 광복60년 기획시리즈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7시/통일부 북한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 일 시: 10월 12일(수) 오후 7시

■ 작품명: 철길을 따라 천만리
(신영화촬영소 1984. 상영시간 110분)

■ 줄거리: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였던 시기, 두 젊은이는 군은 언약을 맺고 행복을 찾으려하였다. 그러나 순규는 일본인 기관사를 살해하고 감옥에 가게 된다. 순규와 정훈한 정치는 순규를 구하기 위해 일본인 검사를 면담하지만, 그에게 겁탈당한다. 해방이 되고 순규는 출옥하여 귀향하지만, 정치는 일본인 검사에게 겁탈당한 죄책감에 순규를 만나지 않는다. 순규는 다시 기관사로 일하게 되지만 정치는 순규를 멀리서 그리워만 하게 된다. 어느 날 열차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이 위험에 처하자 순규가 이를 해결해낸다. 정치는도 기관사가 된 후, 순규 소식을 듣게 되고 둘은 재회를 하게 된다

9월 산행

■ 가 는 곳: 청계산

■ 일 시: 9월 25일(일) 오후 10시

■ 모이는 장소: 양재역 국민은행 앞

■ 준 비 물: 간단한 도시락과 회비 3,000원

강태운 | 전 민주노동당 고문, 대구교90

권희장님 안녕 하셨습니까? 8.15 특별 사면에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이 없었으면 그나마 그 정도의 성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특별 사면을 하기 위해서 들러리를 세우고저 하였던 것이

그 대상이 우리들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투쟁이 미약했으면 사면 폭이 더욱 적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자책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그 정도 성과로 자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번 8.15 민족대축전에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를 실감케 하셨다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보고 하였

습니다.

이 또한 고맙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오직 '염원'으로만 가슴 조이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자는 것은 아름답고 또 당연한 일

입니다.

권희장님,
8월25일자 쓰신 편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남편 이경구 선생님께

김송단 | 1차 송환되신 이경구 선생 사모님



2000년 9월 2일 당신은 복송되었고 나는 홀로 남쪽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는 곧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후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당신이 떠나간 후 5년이지만 내 생활에서는 50년 같은 긴긴 세월이었습니다.

잠 못이룬 밤. 지루하고 고독한 밤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집안 사정으로 공부도 많이 못하고 18세부터 48세,

당신과 결혼할 때까지 의류제품 공장에 피복 노동자로 30여년간을 노동생활로 정육이의

뒤편바라지가 끝나자 유연히 당신과 결혼하게 되어 오랫동안의 꿈이었던 면사포를 쓰고

화려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나는 통일이란 말도 비전향이란 단어도 잘 모르고 시집을 왔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안해라고 맞아 여러 가지로 아기처럼 가르쳐주었습니다.

공부를 해야한다고 학원에 보내주고 살림도 손수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런 당신이 복송되자 나는 공부도 중단되고 힘없이 병석에 누워버렸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누웠다가 수 개월 후 다행하게도 통일광장의 선생님들과 다른

통일단체 동지들의 위로와 격려말씀에 감화되어 정신을 차려 점점 건강이 호전되어

내 힘으로 건강도 찾고 내 힘으로 경제문제도 해결해야한다는 굳은 각오로 일자리를 찾았고 학원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9월 7일에는 중등학교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갈린 후 지금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끼리 힘을 합쳐 통일해야하는 통일노선도

잘알고 8.15해방 60주년 축전도 참여하였고 시간이 있는대로 통일광장 선생님들과 여러 행사에도 참여합니다.

당신도 알고 계시는 지 모르지만 내가 평양 행사에도 참여하였고 금강산도 갔다왔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계시면 관악 청년회 명예회원입니다. 청년들이 음식, 술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 먹고 마시고 놀다 갑니다.

또 한가지 학원에서 내가 성적이 우수하다고 상도 탔습니다.

당신도 몸 건강 하십시오. 나는 지금 희망에 넘쳐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통일일꾼이 되고 통일 후에는

통일조국의 일꾼이 된다는 자부심에 가슴 뽐듯합니다. 통일 후 당신과 만나면 당신의 의사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믿겠습니다.

당신을 참 존경합니다.

결혼 당시 처음에는 비전향 장기수가 무슨 죄수인지 몰랐는데 당신이 복송 후,
비전향장기수는 우리 민족의 분단은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 분단되었기 때문에 민족의 공조로
미국을 철수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부강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어떤 간섭도 뿌리치고
끝까지 투쟁한 애국자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당신은 훌륭한 애국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8.15해방 60주년 축전 행사에 혹시나 공화국 대표단 속에 당신이 서울에 오실까
며칠동안 밤잠을 설치고 기다렸는데 영영 당신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할 말은 태산같지만 이만 줄이고 다음 만날 그 날을 학수고대하며
부디 귀중한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9월 2일 안해 김송단 올림-

비오는 날에

비가 오면 오실까
우산 옆에 끼고
나를 데리러 오시려가
보일까말까하는저 고개를
바라봐도
당신을 그리워하며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네

밤잠 안 자고 기다리면 오실까
얼굴에 웃음 가득 안고
내가 기다리는 것을 아시는가
생각하며
저 멀리 골목길 사이로
보일까말까하는저 평양 땅을
건너 오시려는가
생각해도
그대는 오시지 않네
오시지 않는 당신을 그리워하며
저녁 이슬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네

내가 어디 간 사이 다녀가지나 않을까
내가 없는 것을 보고 슬픈 얼굴로
그 자리에 당신의 냄새를 남기고
떠나가 지나갔나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그대를 그리워하며 참다 못해
슬픈 얼굴을 짓고 마음을 달래러 나갔다고
누구라도 알려줬으면
그대는 슬픈 얼굴로 떠나가지 않았을 것을

통~일 조국!!

이용준 | 후원회원

“.....상암에는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없었다. 통일조국만이 있었다.....”

8월 13일. 6·15 5주년이 지나 맞이하는 8·15 어느 때와 달리 흥겨움의 축제였으리라.

특히 지난 평양에서 있는 6·15 행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단독회담으로 북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의 평화적 북핵 해결이라는 대전제를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8·15 즈음 북경에서 6자회담이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완전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인 회담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맞이한 8·15 이기에 더욱 뜻깊은 자리이기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 남쪽의 민중들의 통일 의식도 무르익었다고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는 6·15 직후 남쪽에서 발표한 북에 전력 200Kw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발표에도 지난 김대중 전 정권 시절 4,000억원 지원처럼 퍼주기니 밀실이니 하는 식의 호들갑도 없었다. 결국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모처럼 남쪽에서 크게 발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북녘의 대표단과 해외의 대표단을 우리 민중이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상암 월드컵경기장이라는 대중적인 공간에서 만나고 합성을 지르고 남북 축구의 응원도 대결이 아닌 누가 이길 것도 질 것도 아닌 모두를 응원하는 모습은 가히 칠천만의 “통일은 이미 됐다”가 딱 맞는 표현이었다. 그리고 북에서는 6·15를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남은 ‘6·15 공동선언 기념일’로 제정하여 6·15의 정신은 우리들의 가슴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듯 했다. 정말이지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렇게 남북이 하나가 되고 어울리는 것이 왜 그리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

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 민중의 통일의 열망을 꺾은 자 누구인가.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한 자 누구인가. 그런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외치는가. 서울역에서 초라한 집회를 하였던가. 아니면 매일 맘 잠 못 이루는 밤 이루고 있는가. 그 통일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 시퍼런 멍과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알 것이다. 도대체 8월 13일 상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거창한 말 외쳐 댈까

8월 14일 그러니 자정이 지나서 새벽 경희대학교 운동장에서 있는 범민련 집회를 생각해보자. 이번 8·15 사면으로 출소한 민경우 전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연설의 내용을 상기시켜보면, 지난 96년 연대항쟁 때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한총련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실현되겠는가’라는 의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민경우 처장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점에서 우린 정말 심각하게 자성해 볼 것이 있다. 세상 모두가 욕했다. 빨갱이라고 간첩세력이라고 불온한 세력 등등 온갖 색깔론에 시달렸다. 특히 연대항쟁 이후 97년 한총련의 김영삼 조기타도 투쟁은 김영삼을 정점으로 한 남의 수구세력 모두와 한총련, 범민련을 필두로 한 애국애족 세력간에 걸잡을 수 없는 대충돌이었다. 경제성장과 걸만 화려하고 자 했던 위장된 민주사회를 내세우며 우리 민중을 속이려했던 지금의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의 진상을 또 한번 까발려 낸 것이었다. 96년과 97년 현장에 항시 있었던 나로서도 솔직히 끝이 보이지 않았다. 과연 나의 의지와 신념으로 이런 것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나에게도 항상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98년 처음 정권을 교체해본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한총련 이적규정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로 피흘리는 탄압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초를 청년학생들은 겪어야 했다. 결국 의연히 감옥 가는 길을 택했던 수 많은 한총련 친구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운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매년 8·15면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상암 경기장의 8월 13일. 범민련의 많은 선생님들과 민주사회단체 어르신들께서는 아실 것이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고. 운동의 관점에서 불과 약 10년 정도의 시간의 흐름을 고나찰해본 나로서도 격세지감을 느낀다. 후원회의 어느 선배님의 자식들이 나랑은 별로 나이 차이도 없지만 즐거운 웃음으로 지하철을 편안히 타고와 가벼운 맥주 한잔을 먹으며 8·15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며 건방진 표현이지만 나 역시 격세지감을 느낀다고나 할까.

항상 긴장하며 구속을 각오하고 서울로 바로 오는 열차를 타지 못하고 천안에서 시외버스 몇 번이나 갈아타고 평택이나 오산으로 들어와 또 경기도 몇 곳을 돌며 서울에 간신히 들어와 8·15 사수해내야 되던 시절. 그게 불과 5-6년 전의 일이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통일투쟁. 이제는 상암에서 편안히 통일 조국이라는 구호만으로 우리는 8·15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민 경우 국장의 의문과 우려. 그 의문과 우려는 민 경우 국장만의 우려가 아니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우려였다. 그 우려가 지배적이던 시절, 그래도 한총련과 범민련만은 온 몸을 다 바쳐 투쟁했고, 한총련을 거쳐간 헤아리기 어려운 청년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최소한 지금의 나처럼 일상에서 통일을 설파하고 최소한 한 나라당 만큼은 안된다고 술자리만이라도 설파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8·15. 참 부실하고 개선할 점은 많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정부측이 준비한 8·15 행사에 비판을 중심으로 한 글을 쓸까

하다가 상암 경기장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비판보다 앞으로 개선하고 우리민족끼리의 크나큰 결실을 더 부각시켜야 되겠기에 주제를 완전히 달리하여 썼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5-6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의 격세지감 속에서 범민련의 선생님들과 한총련을 통해 온 몸 받쳐가며 투쟁했던 젊은 청년학생들의 노고를.

명동성당에서 한총련 탈퇴서 만큼은 쓰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치사한 경찰의 공작으로 끌려 나가 결국 감옥에 가던 친구들. 무작정 붙잡아 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한총련 탈퇴공작.

이런 것을 모두 감내하여 결국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장충체육관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고양종합운동장까지 그 행렬은 이어졌다. 통일. 이제 정말 우리 안에 왔다. 정말 통일은 이미 된 것이다. 거기에는 이념도 경제도 가치관도 띄어 넘을 수 없는 민족이라는 동질감. 같은 민족이기에 모든 것이 초월이 가능한 단결이 있고 그 단결로 지주와 통일이 있다.

통일조국을 모두가 손뼉 치며 즐기는 통일세상을 맞이한 것이다. 실로 세상 참 많이 변했다. ♣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조건 없이 실천하라

6.15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녘 고향으로 돌아간 지 다섯 돌을 맞고 있다.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당국의 현명한 조치로 이루어진 그 날의 감동적 장면은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당사자들의 축복일 뿐 아니라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이었기에 민족모두에게 화해 협력과 자주통일로의 희망적 전망을 주었고 외세와 분단시대, 오욕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었다는데서 자주민족으로서의 긍지와 확신을 갖게 했었다. 무엇보다도 분단과 대결시대에 빚어진 민족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63명 1차 송환으로 비전향장기수 문제는 완전히 끝날 수 없었다.

비전향장기수로 송환을 희망하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공동선언 합의정신에 따라 반드시 송환해야 했고 9.2 1차 송환에서 제외되었던 정순택, 정순덕 노인 등, 본인 의지에 반하여 잔혹한 고문 등 불법적인 강제 전향공작으로 억울하게 전향당한 분들의 송환문제가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2001년 2월 6일, 가정 형편 등으로 1차 송환 때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과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라며 전향 무효선언을 했던 분 등 33명이 2차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 종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는 이분들 주장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곧바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운동에 들어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통일부 등은 2차 송환에 대해 이해는 한다면서도 구체적 방침을 내놓고 있지 않아 당사자들을 분노케 해왔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9.2 1차 송환으로 끝났다느니, 전향자는 대상자가 아니다 라는 등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가 하면 다른 한편 국군포로문제 등과 연계시키는 상호주의 론을 펴오기도 했다. 또한, 공안당국에서는 2차 송환 희망 당사자들에게 '꼭 가고 싶으나, '잘 되지 않겠느냐' 는 등 송환될 준비를 하라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특히 이번 8.15광복절엔 대통령이 직접 송환 희망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산가족 여러분의 아픔은 7천만 민족 모두의 아픔이며 반드시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이다' 라 했다.

2차 송환 희망자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산가족의 범주와는 다르다는 것을 통일부와 적십자사는 물론 청와대에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데서 관심을 모으게 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이

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어떤 시한이 있었거나 사람 수를 정했던 것이 아니다. 비전향장기수로 송환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보내야한다.

둘째, 강제 전향은 전향이 아니다. 따라서 비전향자로 간주하여 그들의 희망대로 송환되어야한다. 강제전향의 부당성은 사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국제인권법규에 위배되었기 때문이고 사회안전법, 사상전향제도, 준법서약제도가 위헌성으로 폐기되었으며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사상전향제도의 위헌성과 강제전향의 위법성을 밝히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원상 회복조치를 권한 바 있다.

셋째, 전쟁포로는 국제법상 권리로 아무 조건 없이 송환되어야 했다. 이들은 구속이나 자백 강요 등 부당한 대우와 재판과 전향을 강요받아서는 알 될 신분이였다. 또한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과 정전협정에 따라 정전 후 60일 이내에 송환되었어야 했다.

넷째, 6.15공동선언 5돌을 맞은 오늘,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화해 협력 사업에서 눈부신 진전을 보고 있으며 특히 6.15, 8.15민족행사에 당국대표단까지 함께 하는가 하면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 국회 방문 등 화해 협력을 넘어 자주와 평화 통일로의 빠른 발걸음을 하고 있다. 민족통일행사와 당국자 대화 재개 등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살려 분단과 대결시대의 가장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꼭 실현해야한다.

다섯째, 2차 송환 희망자들은 대부분 75살에서 90살에 이르는 노약자이고 오랜 감옥의 후유증과 각종 질환을 앓고 있다. 2001년 2차 송환을 요구했던 분들 가운데 김태수, 김경선, 장광명, 정순덕 노인이 평생의 염원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 노인들이 삶이 다하기 전 그리운 고향과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송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5. 9. 2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촉구 참가자 일동

편집자주

이 글은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층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비전향장기수 송환5돌기념 및 2차송환 촉구대회에서 채택된 송환촉구 성명입니다.

강성철 회원을 찾아서

임미영 | 회원

강남네거리의 오후
 녘은 부산스럽기
 짝이 없다. 높은 건물들에
 갇힌 거리에는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또 차들은 차
 들대로 그곳이 거대 서울
 의 한 중심임을 자처하며
 제각기하고 바쁘게 움직
 이고 있었다.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에 몸담고 있
 는 강성철님을 만나러 노



출신이다. 59년생 돼지
 띠니까 마흔일곱의, 더군
 다나 님은 결혼경력(?)
 이 절대 없는 숫총각이란
 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러 여자를 사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나의
 설부른 짐작으로는 다소
 수줍어하는 성격에다 이
 후에는 노동운동으로 자
 신의 안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 결혼의 기회

를 놓쳤던 것 같았다. 강성철님은 삼형제의 막내로 부
 모님— 그는 시종일관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결코 되잖
 아드릴 수 없는 노고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다. —이 고
 향을 지키고 계신단다. 지금 어머니는 큰 수술을 받고
 휠체어에 의지하고 계시지만 석방되어 상경하는 길에
 잠깐 얼굴만 내비치고 온 이후 투쟁현장에 쫓아다니느
 라 아직 마주앉아 이야기도 변변히 못 나누어 여간 송
 구스러운 게 아니란다.

동자 여름 현장투쟁의 한 곳인 강남 네거리의 한 오피
 스텔로 갔다. 그저 높은 건물의 그늘에 불과한 비좁은
 앞마당에 낮게 매달린 깃발아래 두 동의 농성자 천막
 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 농성자들이 자리를 비
 웠길 래 식사가 끝나기를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나타날
 기색이 없어 전화를 걸었더니 식사 후 바로 서초동에
 위치한 케이시시 빌딩으로 이동을 했단다. 나는 다시
 걸거나 차를 타서 현장에 도착했다. 건물 앞에 스무 여
 남은 사람들이 둘러 앉아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
 는데 그날 시작된 이동농성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 둘레에 진지한 얼굴로 앉아있는
 강성철님을 찾아조용히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서둘러 이야기를 시작했다.

8.15 사면으로 일년 여 만에 감옥에서 나온 강성철
 님은 다소 수줍은 모습이었으며 얼굴이 밝고 지친 기
 색이 없이, 막 시작된 현장투쟁에 전력을 다하려는 모
 습이었다. 특히 수감 중에 큰 위로가 되었던 양심수후
 원회에서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므로 가슴이 두근거렸
 다한다.

강성철님은 지금은 나비축제로 유명해진 전남 함평

를 놓쳤던 것 같았다. 강성철님은 삼형제의 막내로 부
 모님— 그는 시종일관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결코 되잖
 아드릴 수 없는 노고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다. —이 고
 향을 지키고 계신단다. 지금 어머니는 큰 수술을 받고
 휠체어에 의지하고 계시지만 석방되어 상경하는 길에
 잠깐 얼굴만 내비치고 온 이후 투쟁현장에 쫓아다니느
 라 아직 마주앉아 이야기도 변변히 못 나누어 여간 송
 구스러운 게 아니란다.

강성철님은 곤궁한 중에 학교생활을 그만 두고 직업
 학교에서 일찌감치 차량정비기술을 익혀서 버스 정비
 일을 시작했다. 80년에 마이크로버스 회사에 근무하
 던 중 픽업차와 충돌하여 거의 1년이나 되는 병원 생
 활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하려 하였으나 퇴사를 종용하
 는 바람에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정비 일을 하게 되고 틈틈이 배운 실력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자 83년 상경하여 버스회사를
 거쳐 콜택시 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에서 올
 라온 탓으로 길이 익숙하지 않아 친구를 옆에 태운 채
 기사생활을 하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말았다. 그러
 다가 운전이 익숙해졌을 무렵인 87년에 범한택시에

입사하게 된다. 범한택시라면 지금에조차 어용노조를 앞세워 진성 노조를 탄압하는 악덕사주로 유명한 택시 회사이다. 강성철님은 그 당시에는 회사 내 향우회의 일원으로만 열심히던 중 그곳에서 사주의 부당한 경영에 반발하던 이 아무개(이상필) 동지에게 큰 영향을 받아 노조결성에 참여하게 된다.님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노조의 기능이나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노조에 가입하면 그저 사우들의 복지나 상조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자신의 성실성과 회사에 순응하는 태도에 한없는 관심과 너그러움을 보이던 사장이 노조가입 후 돌변하여 어용노조위원장을 동원하여 극심한 노조 탈퇴 공작을 벌이는 등 인간적 배신을 일삼았다. 그러나님은 굴하지 않고 노조설립에 반대하는 향우회도 탈퇴하고 또 노조의 지역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하여 학습에 열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조의 분열을 책동하는 전방위의 방해공작에 시달리다가 결국 환멸을 느껴 회사를 그만 두고 말았다.

그 후님은 인적이 벌이는 다단계 사업에 발을 들여 놓기도 하는 등 혼란을 겪다가 93년에 다시 북가좌동에 위치한 택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절대 노조에는 가입하지 않으리라 단단히 결심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입사 후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노조 가입의 권유가 없자 스스로 노조를 찾아가 노조의 일원이 되었다. 그 이후 그는 <오토 여성 노동자 투쟁 후원회>에 가입하면서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에 합류하게 되고 회사에서의 정직과 해고를 겪으면서 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에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님은 이후 연대투쟁으로 구속되고 2000년 7월에는 국보법의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어 바로 구속되었다가 6개월 만에 석방되었다.님은 2003년 다시 구속되고 형기 감면으로 석방되었다가 재차 구속되어 2년여 만인 2005년 8.15 대사면으로 석방되었다. 말하자면 2천년대에 이르러 온통 구속과 석방을 반복한 셈이었다.님은 지난 해 4월, 전해투와 전철연 회원에 대한 구치소직원들의 폭행 사건의 규명을 위해 20여일 간의 재소자 단식 투쟁에 동참하기도 하였는데 그사건으로 재소자에게 공공연히 행해지는 인권유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감옥에서는 활동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궁핍한 중에도 삼형제를 바르게 키워주고 항상 정의로웠던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가장 힘이 들었다고 했다.감옥에는 죄를 지은 사람과 부당한 권력의 횡포로 죄인이 된 사람과 미처 자신의 죄를 숙지하지 못하는 사람과 간힘으로 해서 개정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서 비로소 그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님은 감옥에서의 시간을 자신의 사회의식이나 투쟁방법과 인간관계에 대해 반성하고 각성하여 자신의 투쟁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다.

강성철님은 또한 빛 좋은 개살구 식의 8.15사면에 대한 기간성을 토로하면서 정작에 석방되어야 할 노동자들이 여전히 감옥에 남아있음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전해투와 민주노총의 갈등에 대해서 서글픔과 분노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심한 가슴앓이를 했었다. 애당초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어 기초생활조차 불가능한 해고자들을 위해 또 노동자의 삶이 보장되고 자본의 횡포에서 해방되는 그 날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던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노동운동이나 투쟁은 항상 함께 하고자 하는 동지들의 희생이나 인내심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라는 기치아래 2005년 노동자 여름 투쟁단으로서 4박5일의 일정으로 계획된 이동 농성을 시작한님은 굴욕적인 사회적 교섭이 아닌 실질적 현장 투쟁에 몸담아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원하며 그 꿈이 헛되지 않게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는 화면 상태가 썩 좋지 못한 카메라폰으로 사진을 찍은 후에 바쁜 시간 중에 매끄럽지 못한 인터뷰에 응 해주어서 고맙다고 말한 후에 힘내라며 악수를 청하고 헤어졌다. 강성철님은 철야농성 후에 내일은 울산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웃는 얼굴로 길을 건너 동지들에게로 걸어갔다. 희망을 잃지 않으려 몸을 똑바로 세우고 경쾌한 걸음걸이로 말이다.✽



◀ 경향만평 2005년 8월 17일



뉴스툰 권범철 2005년 8월 24일 ▶

물 친구·바위 친구를 찾아서

서미라 | 회원(교사)



물처럼 부드럽고 깨끗한 사람, 바위처럼 단단하고 믿음직한 사람, 그 모두를 품고 있는 넉넉한 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산에서 만났었다.

세월은 흐르고 가슴 한 구석 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밀어두고 일상에 매몰되어 살며 산을 점점 멀리했다. 산은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었지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삶속에 늘 한결같이 함께 있는 듯도 했다.

8월 21일 일요일 요즘 내 기분이 방학숙제를 다 못했는데 개학을 맞이하는 학생과 같다. 개학을 며칠 앞두고 괜히 마음만 바빠지고 일은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어디에 갈 엄두를 못 낼 지경인데 다 떨쳐버리고 산에 가자는 남편의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내 올 여름방학 계획에는 등산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 ‘숙제’라도 한번 해야만 후련할 듯 하다.

이른 아침부터 김밥 싸느라 분주하다. 나는 재료를 마련해 주고 남편은 열심히 말고 썰다. 손이 커서 김밥도 굵직굵직하다. 남도를 여행하다 가져온 맛갈스런

여수돌산의 고들빼기, 갓김치도 준비했다. 밀린 방학숙제를 하느라 바쁜 중학생 딸아이는 남겨두고 방학숙제에 도통 무관심한 초등학교 아들 건우를 대동하고 나선다.

어느새 문 밖에는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푹푹 찌던 무더위는 어디가고 선선한 바람에 높푸른 하늘, 산행하기에 더 없이 좋은 날이다. 출발이 상쾌한 오늘 의 행선지는 불암산(佛岩山)이다.

당고개 전철역에 권오현 선생님을 비롯하여 80대의 소녀(?) 변숙현 선생님에서 범민련의 20대 청년회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이니 20명가량 된다.

친구가 되어줄만한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건우는 시무룩하다. 하지만 산행을 시작하자 아주 씩씩하고 밝아졌다. 부처바위라는 산 이름처럼 커다란 바위를 가끔 만났는데 아이는 바위를 타고 오르기 위해 설치해둔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을 무척이나 재미있어한다. 날씨가 청명해서 시야가 톡 트이니 가슴 속까지 환하다.

불암산 등산은 처음이지만 불암사라는 아담한 절에는 오래전에 가 본적이 있다. 함께 갔던 사람이 “여러가지 고뇌가 많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이 절에도 혼자 온 적이 있다.”라며 들려주는 이야기를 안쓰러움 반 즐거움 반으로 들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른다. (그런데 웬 즐거움이야?) 아마도 종류는 다르지만 젊은 날의 고뇌를 비슷하게 짊어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친숙하고 반가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가 바로 오늘 아침 김밥 말던 사람인데 요즘도 가끔 ‘단기 출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번뇌는 평생을 가나보다. 어린 아들은 아빠가 진짜 ‘출가’ 할까봐 겁(?)을 먹고 출가를 만류하는 대신 그토록 좋아하던 텔레비전을 없애는데 순순히 동의했다. 지난

3월부터 텔레비전이 안나오니까 책을 더 가까이하고 대화도 더 많이 할 수 있어 좋다.

사실 산에 가면 쓸데없는 생각이 줄어든다. 앞만 보고 묵묵히 걷다보면 단순하고 여유로워진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주로 산에 등지를 트는 것일 터이다.

두 시간쯤 산행을 하다 드디어 점심시간, 널따란 곳에 자리 잡고 빙 둘러앉아 각자 준비한 도시락을 풀어 놓으니 진수성찬이다. 포식을 하고 일부는 그 자리에 남아서 휴식을 취하고 일부는 정상에 오르기로 했다.

한참 따라가는데 어린아이에게는 길이 너무 가파른 듯하여 다시 내려왔다. 그런데 원 위치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냥 앞서가는 이들만 무작정 따라가다 보니 갈라진 등산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탓이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니 정상에 오르기도 남을 만큼 걸었다. 정상에서 권오현 선생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김건우! 김건우!’

우리도 화답을 했지만 소리가 위에서 아래로는 들려도 숲에 가려져서인지 아래서 지르는 소리는 위로 잘 전달되지 않는 듯했다. 그래서 선각자들은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인가? 눈에 익은 길목에서 기다리다 일행을 다시 만나니 참 반갑다. 다시 점심 먹은 자리로 돌아오니 오늘 강의 해주기로하신 강정구 교수님께서 도착하셨다. 요즘 인터넷 매체에 쓰신 글로 색깔론에 적잖게 시달리고 계신다고 한다.

학문의 자유와 건전한 담론은 실종되고 폭력이 난무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언제쯤 무지막지한 국보법이라는 칼을 마구 휘두르지 않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 버릴 것인가?

강의를 띄엄띄엄 들어서 내용을 요약해서나마 소개하지 못해서 미안스럽다. 작은 폭포에서 혼자 놀고 있던 아이가 자주 나를 찾는 바람에 아쉽게도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남편의 소감을 빌리자면 “알량한 지식으로 흑세무민하는 인간들이 많은 세대에 역사의 소명의식을 갖고 무지한 벽을 깨려는 순수한 지성인의 고뇌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더 높이 더 멀리 앞서가시는 분들은 항상 외롭고 고달프다. (테일리 서프라 이즈를 참고하세요.)

지난 6월 산행에는 리영희 교수님 강의가 있었고 이번에는 강정구 교수님의 강의가 있어서 공부하는 산행이 되고 있다.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자연과 더불어 숨쉬고 민족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분이 혼자 물놀이 하고 있는 건우에게 “친구가 없어서 심심하겠다.”라고 하자 “물 친구, 바위 친구가 있어 괜찮아요.”라고 대답을 한다. 기대이상의 뜻밖의 대답이다. 콘크리트 도시의 아이에게 자연이 가져다준 작은 깨달음만 같아 이번 산행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그 말 때문에 (비록 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지만) 선뜻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다음 산행이 기대된다. 



6.15 5주년 기념「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이철 | 재일본양심수동우회



6월 14일(火)

오늘은 남측 대표단이 평양에 오는 날이다. 12시10분에 남측 대표단이 탄 버스가 공항에서 도착했다, 우리들이 11일에 도착했을 때와 같이 호텔의 전종업원들이 현관의 홀에 양측으로 서서 대표단이 현관에 들어서자 일제히 박수가 울려 퍼진다.

나는 이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두기 위해서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다. 왔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트린다. 나도 샷터를 누른다. 1장 2장 3장. 나의 렌즈 속으로 그리웠던 사람들의 얼굴이 차례차례 들어온다. 더 이상 안되겠다. 나는 카메라를 포켓속에 집어 넣고 그들 무리 속으로 뛰어 들어 갔다. 아아..00선생! 오~이철씨! 오셨습니까? 나는 그들 한명 한명과 악수하고 껴안았다.

마치 꿈과 같았다. 한국에서도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찌보면 반공법, 국가보안법의 소굴(?)인 평양에서 만나 포옹을 하다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박용길 장로, 장영달의원, 차례차례얼굴이 나타난다. 남민전의 김영옥씨, 한명숙의원, 임현영선생, 조성우씨, 이승환씨. 오! 저분은 우리당의 김희선 의원이 아닌가. 인사를 하러 가자 그녀는 놀라서, [민향숙도 같이 왔어? 어디에 있어?]라고 물었다. 내가 이번에는 못 왔다고 말하자 [8.15때 서울에서 같이 만나

자]라고 말했다. 누군가 뒤에서 [이철선생 아니십니까?]라고 말을 건다.

뒤돌아 보니 젊은 청년이 있다. [저는 정현곤입니다. 선생님과 88년에 만난 후 처음이지요? 기억 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한다. 나는 머리 속으로 재빨리 20년을 카렌다를 넘기고 있었다. 그러자 당시의 그의 얼굴이 생각 났다. 아~그때의 학생인가! 그래 그래 이름도 확실히 정현곤 이었다. 정말 반가웠다. 우리당의 유선호 의원이 [이철씨 오랜만입니다.]라고 손을 흔든다. 그와는 오오사카에서 만난 적이 있다. 나에게 정말 꿈만 같은 30분이었다.

아아~평양에 오길 잘했다. 이것 만으로도 온 보람은 있었다.

오늘은 저녁7시부터 민족통일 대행진이 있는데 아침부터 비가 심하게 내렸다.비속을 걸을 것을 생각하며 기분이 우울해 졌지만, 천리마 동상의 앞에서 개선문이 있는 김일성 종합경기장까지 약2키로를 도보 행진해서, 경기장에서 대회 개최식이 열린다. 천리마 동상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비옷이 지급 되었지만, 나는 비옷의 상의만 입고 바지는 입지 않았다. 천리마 동상의 앞에 반팔, 트레이닝차림으로 깃발을 들고 정렬해, 비를 참고 있는 소년들과, 비에 젖어가면서 조국 통일을 연호하는 수만의 평양시민들을 생각하면, 적어도 비옷의 바지만이라도 벗어서 같은 비에 같이 젖고 싶다고 생각 했다.

나와 정갑수씨는 송세일 사무총장의 배려로 맨 앞줄에서 프랜카드를 들고 가기로 했다. 한동련의 배려에 감사한다. 행진의 준비를 마치자 맨 앞줄의 오픈카를 선두로 북의 악대, 그리고 남측대표단이 행진하고, 그 다음에 해외의 우리들이 행진한다. 재일은 해외 대표 중에서도 맨앞이다. 우리들은 한 손에 프랜카드를 한 손에 흰색 바탕의 청색의 통일기를 흔들면서 전진했다. 맨 뒤는 북측대표단이다.

제일 앞줄의 오픈카 그리고 악대가 행진을 시작하자, 멀리서 지축을 울릴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우리가 있는 곳까지 전달되어 우리들은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큰 연호와 울림에 땅을 흔드는 울림에 둘러 싸여 녹아 들어갔다. 평양 시민들의 우리와 같은 환영은 우리들의 마음속의 응어리를 완전히 태워 버리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렸

다. 모자도 비옷도 모두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머리는 비에 흠뻑 젖어 버렸지만 이제 그런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연도를 가득 메운 10만의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정식으로 평양방문의 감격적인 인사를 더해 마음으로 부터 인사를 했다. 연도의 건물의 창문에서도 손을 흔들어 우리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이 보여, 나는 가슴이 벅찼다. 비옷의 윗도리를 제외 하고 전신이 비에 젖어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바지와 머리가 흠뻑 젖어도 연도의 대 환영의 물결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감격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 비인지 눈물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고, 얼굴이 엉망진창 이 되어 조국통일을 연호하고, 손을 흔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큰소리로 목청껏 조국통일의 구호를 이렇게 아무에게도 방해 받지 않고, 소리 높여 외쳐본 적이 없었다. 나에게 있어 이장소의 이순간은 57살의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순간이었다. 18살 때부터 57살까지의 39년. 사형수 3년6개월을 포함한 13년의 감옥살이와 10여년의 동우회 활동을 통해, 그 모든 인생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것 같은 기분이다. 아아, 동우회의 동지들이 이 장소에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 혼자 이런 행복함을 맛봐도 괜찮은가. 나는 이번에 참가하지 않은 동지들의 뒤통까지 큰소리로 통일을 외쳤다.

천리마 동상에서 개선문까지 2키로를 행진하자 눈앞에 거대한 김일성 경기장이 나타났다, 우리들은 개선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경기장의 정문에 도착했다. 거기에도 평양 시민들이 작은 깃발을 흔들면서 조국통일을 연호하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문앞에는 남측대표가 미리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뒤로는 해외 북측이 도착했다.

10분 정도 멈춰 서 있으니까, 갑자기 악대를 선두로 남측 대표단이 움직였다. 게이트를 통과해 남측이 경기장으로 들어서자, 경기장의 상공에서 원폭이라도 떨어진 듯 와~~하고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우리들이 경기장 입장하고 나서 경기장을 한 바퀴 돌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경기장에는 10만의 평양시민이 이 큰비 속에서 흠뻑 젖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라운드를 일주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자 민족통일 대축전의 개회가 선언되었다.

그라운드에는 악대를 중심으로 치마저고리를 입은 청년들이 6.15의 글자를 만들어 정렬하고, 청색의 통일기를 든 소년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서있었다.

20시 경 시작한 개회식자체는 좋았지만, 비 속에서 개회식의 인사가 너무나도 길었다. 역사적인 6.15선언의 5주년을 기념하는 민족 대축전 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사가 너무나도 길었다! 그라운드에 계속해서 서있는 소년들은 비에 젖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누가 그런 긴 인사말을 듣고

있겠는가. 나는 다숨이와 은설이가 비에 젖어서도 참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평양의 청년들은 역시 대단해서 한명도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다. 평양의 소년들은 손에 손을 잡고 원을 만들어 춤추기 시작했다. 남측의 대표가 그라운드 안으로 달려 들어간다. 나도 옆의 정갑수씨에게 말했다. [가자] 우리들은 평양의 청년들과 원안으로 녹아 들어갔다. 통일열차의 노래가 흐른다. 이제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개회식이 끝나고 고려 호텔에 돌아온 것은 아마 1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모두 피곤했지만 흥분한 탓인지 머리는 맑았다. 우리들은 2시가 넘도록 소주를 마시면서 기쁨을 나눴다.

6월 15일(水)

아침 9시부터 4.25문화 회관에서 [민족통일대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낭독된 [통일선언]은 6.15를 남북의 국경일로 하자고 하는 감동적인 내용이었다. 4.25라고 하는 것은 조선인민군의 창설 기념일로, 이 건물은 군사건물이지만 민간의 행사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4.25문화 회관의 홀은 6000여석의 홀로써 이 홀 이외에도 2000명이 들어가는 작은 홀이 있다고 한다. 큰 건물이다.

그 후 2층의 홀에서 6.15관련 사진전시회를 감상하고, 12시 부터는 기대하고 있던 평양 단고기집에서의 점심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신탕은 평양에 와서 2번째이다. 요리는 풀코스로 순서대로 요리가 나온다. 맞은편에 총련 분이 개고기는 아무래도 안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사양하지 않고 그것까지 받아서 2인분을 먹은 것 같다.

북에서는 개고기가 매우 고급으로 요리도 고급스럽게 만들었다.그 래도 나는 역시 일본이나 남한처럼 서민적인 요리법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여기의 요리는 맛있었다. 오늘 6월15일은 우리들에게는 민족의 기념일이 되겠지만 개들에게는 대학살의 날로 기록 될 것이다.

오후에는 각부문별로 분과별 회합이 있었다. 버스 에서 확인하기 위해 전원의 분과별 소속 팀이 불려졌다. 나는 통일분과였다. 그 외에도 청년, 여성, 농민, 노동자, 작가등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서승씨가 [안내원동무 나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는데 어디 소속입니까?라고 물었다.

안내원이 [어디든 좋습니다.]라고 말해서 그가 [그러면 여성분과에 참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서승선생을 여성분과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라고 하자 모두들 크게 웃었다. 통일분과는 어제 방문한 봉도에 있었다, 통일 분과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이날도 통일선전 기념탑앞에서 설명을 들었다.

뒤를 돌아가면 당시의 참가자들의 이름이 빨간 글자로 새겨져 있었다. 김구, 김구식 선생의 다음에 남측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민주 독립당 대표인 홍명희 선생의 이름이 있었다. 선생의 아호는 벽초, 부친인 홍범식 선생은 한국 합방 때 항의 자살 하시고, 백부인 홍영식 선생은 갑신정변의 개화당의 중심인물이라는 집안 이다. 벽초선생은 소설 [임꺽정]의작자로써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지만, 그 때 연석회의 이후에도 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북에 남아 공화국의 부수석을 지내시고, 조국평화 통일 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셨다고 한다. 벽초선생은 당시부터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와 함께 근대조선의 3천재라고 불려진 분으로 다른 두 명이 후에 친일로 돌아서, 일제의 앞잡이가 된 것에 비해, 최후까지 애국의 지도자로서 분투하셨다.

아들은 국학자 홍기문 선생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책, 즉 [조선실록]을 전부 우리말로 번역 하셨다. 이분도 훌륭한 일을 해내신 분이다.

이 분과별 모임에는 민가협 의 상임의장 조순덕 어머니와 양심수 후원회의 김호현씨, 34년간 복역한 임방규선생도 참가하고 계셔서, 우리들은 같이 기념 사진을 찍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다. 이 분과별 모임은 아직 내실이 없어서, 자기 소개 정도로 끝나고 말았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 이지만 남측 대표단이 서울에 돌아가는 날의 아침, 현관근처에서 남측의 사람이 북의 누군가를 붙잡고 흥분하여, 화를 내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가 하고 옆에 있는 남측 사람에게 물으니, 그는 서울의 작가 협회의 사람인데, 이전부터 북측의 당국에 남북문학자동지의 교류를 몇 차례나 제안하고, 북은 그때마다 연기해 왔고, 이번의 분과별 만남에서도 북측 작가와 관계자와의 교류도 없었고 만나게도 해주지 않아 화를 낸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남북간에 이런 문제들은 많이 일어 나겠지. 내실을 갖추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터. 나는 이번에는 일단 남북의 민간이 같이 모여서 큰 틀을 만든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측의 지인은 [남측의 기분을 일본에서도 전달해 주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북측에도 좋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적어 둔다.

나는 연석회의에 참가한 민족 대표들과 함께 탄 배도 손으로 만져 보았다. 나는 그때 대동강의 강변까지 내려가, 양손을 물에 담그고, 얼굴을 씻었다. 나는 그 옛날 애국자들이 손으로 뜬 물과 같은 물을 느끼면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대동강물은 따뜻했다.

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자.

그 후의 일정이 빽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빨리 이동했다. 6시부터 청년중앙회관에서 오페라 '춘향전'을 감상한다. 춘향전은 민족예술단의 가극으로,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까

흠잡을 데가 없고 너무나 훌륭했다. 내용은 약간 북한답게 변형된 것이 느껴졌다. 특히 계급간의 차이를 묘사한 장면에서는 약간 '상당히' 살기가 느껴졌다.

그 후 9시부터는 인민 문화 궁전으로 이동해,북측이 준비한 기념연회의 식사가 있었다. 9시15분에 시작한 연회는 우선, 북측의 최고 인민의회 부위원장의 인사와, 윤재천 민화협공동의장의 인사가 있었다.

6月 16日(木)

오늘은 공식행사 마지막 날이다.

아침 9시에 버스에 올라 만경대의 김일성 주석 생가.

나는 남측에서 참가한 임한영 선생에게 [임선생 여기에서 기념촬영을 할까요? 이런 시절도 오네요.]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바로 이동.

11시20분에 개선문. 이곳은 김일성 경기장의 앞으로, 우리들이 빗 속을 행진했던 장소이다.

나는 거대한 개선문의 높이 보다 그 바로 앞에 있는 거대한 그림에 눈길이 멈췄다.

김일성 장군이 조국 해방 후에 평양에 입성하여,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 장소가 모란봉 공설운동장으로 지금의 김일성 경기장이라고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기장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이후에는 바빠 움직였다. 3시경부터는 류경 정주영 경기장에 이동하여 체육경기. 경기는 우리팀과 하나팀으로 나누어 배구와 손을 잡고 달리거나 공을 가지고 달리거나 하는 경기 등을 했다.

경기 후에는 민족 통일 대축전의 개회식. 정주영경기장은 옥내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괜찮았다. 이 건물은 현대재벌의 정주영회장이 세운 것으로 그의 이름을 딴 건물이다. 정주영 회장의 이름은 북에 소 1000마리를 보낸 특이한 이야기와 함께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류경이라고하는 것은 옛날부터 평양을 버드나무가 많은 고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다고 한다. 근처에 류경 호텔이라는 미완성의 고층 건물이 있지만, 미완성인 채로 지금은 유령탑처럼 기본 나쁘게 높이 솟아 있다. 이것은 숲속의 도시 평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야 할 거 같다. 그래도 철거하는 것도 꽤 비용이 들 것이다.

9시부터는 남측 대표단이 참가한 연극단의 가극[금강]의 공연이 있었다. 봉화예술 극장에 들어가자, 이미 남북해외의 대표단 자리 이외의 자리는 평양시민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들어가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었다. 아

마 그들은 보통 시민들이 아니고 연극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같았다. 얼굴 생김새나 화장도 보통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였다.

그 속에는 아마도 [춘향전]을 연기한 민족 예술단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 남측의 가극은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들은 가극[금강]을 큰 감동을 받으면서 감상했다. 대규모의 공연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소극장 같은 곳에서 공연하는 것이 어울릴 듯한 가극이었지만, 내용도 질도 훌륭하다고 생각되었다. 아침이슬을 부른 양희은씨의 동생 양희경씨도 출연해, 좋은 연기를 했다.

이 봉화 예술 극장은 일체 사진 촬영이 금지 되어 안에서 도 밖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다. 무언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이날 저녁은 인민문화 궁정에서 남측이 주최하는 연회였다. 어제는 북측이 주최하는 연회였고, 오늘은 남측의 연회. 해외는 돈이 없기 때문에 대접을 받을 수 밖에. 찐 잉어요리 등이 나왔다. 내가 앉은 테이블에는 민변의 김형태 변호사, 미국에서 온 정기열 목사 등이 있어서 즐겁게 식사를 했다.

나는 좀 취한 기분으로 여기저기 소주병을 가지고 돌면서, 따르기도 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며 이야기를 했다. 어떤 여성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보니 문호근씨의 미망인이었다. 내가 깜짝 놀라자, 그쪽도 설마 내가 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이철씨랑 많이 닮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여러 사람과 교류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모두들 평양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꿈만 같다고 말 하고 있었다.

민가협(민족통일)의 조순덕 의장은 오랫동안 의장을 역임한 임기란 의장(신철의 어머니)의 뒤를 이어 상임의장이 되신 분으로, 어머니라고 부르기에는 젊어서 웬지 부끄럽다. 그녀는 학생들의 어머니로 밝고 상냥하게 [이철 선생을 만나고 왔다고 하면 모두들 기뻐 할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양심수 후원회의 김호현씨는, [권오헌 의장이 이번에 올 수는 없었지만, 이철선생이 분명히 평양에 가실 거기 때문에 만나면 아무쪼록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이두사람과 3년 6개월간 징역살이를 같이 한 임판규 선생과 고승택 선생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고 말하고, 노중선씨와 같이 사진을 찍었다.이날 밤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호텔에 1시경 돌아와서 그대로 침대로 가 잠들어 버렸다.

6월 17일(金)

오전 중에는 기념품 쇼핑과 주체 사상탑 방문.거기에서

서승씨와 정갑수씨와 같이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샀다. 조선 전도의 지도를 샀다.

11시에 동명왕릉. 동명왕은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을 말하는것으로, 장수왕이 평양으로 환도했을 때, 시조의 동명왕의 무덤을 평양에 이전 했다고 한다. 장수왕은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그런 이름이 붙여 졌다. 부친은 24대, 이름 높은 광개토대왕으로, 고구려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던 유명한 왕이다. 장수왕이 시조의 묘를 옮겼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가? 라고 서승씨가 묻자 있겠지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들은 적이 없다. 내가 장수왕이라면, 부친의 묘도 옮겨 왔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동명왕릉은 일제 시대 때 도굴 당해 자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왕릉의 원래의 크기는 한 면이 22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위에 분묘가 둥글게 솟아 있던 것을 1993년에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개건 할 때 한 면이 32미터로 조금 크게 만들었다고 한다. 동명왕릉의 뒤로는 그를 따라 건국에 참여한 8명의 부하의 묘도 있었고,그 뒤로 '바보 온달'이라고 불렸던 온달장군과 평원왕의 공주의 묘도 있었다. 에~, 여기에 바보온달의 묘가 있었구내하고 놀랐다.

그 주변은 조용한 소나무 숲으로, 소나무의 사이를 부른 바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다. 나는 기분 좋은 기운이 감도는 송림을 걸으면서, 어디에 송이버섯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저기 살피고 있는 자신이 웃기게 생각 했다. 13시경, 일단 호텔에 돌아갔다. 오후에는 남측대표가 서울에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호텔 로비에서 카메라를 손에 쥐고 그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서울에서도 좀처럼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평양에서 만나다니, 세상은 확실히 변하고 있다. 시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별의 아쉬움을 사진에 담았다. [이제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8.15때 반드시 가겠습니다.] [민항숙도 꼭 같이 오세요] [예 꼭 그렇게 할게요.]

[일본의 동지 여러분들에게도 안부 전해 주세요. 8.15때 서울에서 만납시다.] 남측 대표단이 가고 나자, 호텔은 갑자기 불이 꺼진 것처럼 행하니 정적이 흐르고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 고희택씨의 가족과 만나는 것과 최대의 목적 중에 하나인 장기수 선생과 만나는 일이 남아 있다. 장기수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은 5시라고 한다.

4시에 안내원이 나를 불렀다.

놀래서 가보니 고선생의 가족이 왔다고 한다.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쪽으로 다가가니, 젊은 사람이 일어 선다. 안내원이 [고선생의 종형제는 77살로 몸이 약해 올 수 없어

서, 대신 그분의 아들이 왔습니다]라고 그를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장기수 선생들과 만날 예정인 5시를 훨씬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말이 없다. 나는 몇번이나 안내원을 붙잡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황금 같이 귀중한 시간이 가고 있는데.]라고 재촉했다. 7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7시 30분이 넘었다. 내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로비를 울린다. 안내원들은 웬지 나를 피하고 있다. 다른 안내원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왜 나한테 그러니까? 다른 안내원에게 부탁하셨잖아요?]라고 말한다.

나는 화도 나고 실망도 해서, [이번의 감동적인 평양 방문의 마지막의 마지막인데 이렇게 찬물을 끼얹다니, 끝까지 좋은 추억과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줘. 이 번에 못 만나면, 일본에 있는 동지들에게 머라고 설명해야 하나.]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5시라고 들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 수 없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만 한다.

나는 상당히 화가 나있었다. 그때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있던 어떤 총련 분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이철 선생, 벌써 저녁 시간도 지났고, 식사부터 먼저 하시지요?] [아닙니다. 나는 장기수 선생님과 같이 식사를 할 것입니다. 좀더 기다리겠습니다.]

8시30분이 넘었다. 방금 전의 그분이 다시 말을 걸었다. [이철선생의 기분은 잘 압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여기의 사정과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 한 술부터 배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분은 충분히 이해가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그 말에 감명을 받았다. 순간적으로 나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나는 말했다. [선생님, 나는 이번에 장기수 선생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마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장기수 선생님도 이번 대축전에 참가 하셨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면 당연히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희망대로만 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총련활동을 수 십년간 하시고, 공화국 방문도 수없이 하셨으니 선생님도 그 동안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으셨겠습니까?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위로가 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이 일본에 돌아가서도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의 한마디에 마음이 개운해 졌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해했다. 그래, 첫술에 배부르랴. 모두들 비슷 비슷한 아픔을 삼키고, 소화하고, 그

리고 승화 해왔다. 내가 만약 이번에 장기수 선생님을 무사히 만날 수 있었다면, 교만과 끝없는 기쁨에 빠져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날 수 없었던 것은 나에게 여러 가지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분단 50년간 북은 가족을 만나는 데에도 면회를 신청해야 하고 친구를 만나는 데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다.

그런 사회가 되고, 또 북에서 보면 남은 폭력과 사기가 만연해 붕괴 한 사회로 보여 질 지도 모른다. 이런 이질적인 사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릴 것이고, 오랫동안 대화와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부분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애정을 가지고 아픔까지 함께 꺼 안는 것이 서로 마음을 여는 제일보 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은 의미가 없다. 나는 이번에 장기수 선생을 못 만난 것도 나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좀더 겸허하게 하는 좋은 약이라고 생각 했다.

나는 평양의 마지막 밤을 정갑수씨와 돌이켜 맥주와 소주를 마시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것이 정말 좋았다고 마음으로 부터 생각했다.

18살 때부터 39년간의 추억이 내 마음속을 스쳐 갔다. 나는 나의 모든 과거에 감사 하면서, 기분 좋은 피로감 속에 잔을 비웠다. 장기수 선생에게 드리려고,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일본에서 가져온 커피 5병은 방을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에게 선물로 드렸다.

그녀들은 부끄러워 하면서도, 기쁘게 받아 주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개운하게 되었다. 이번의 평양 방문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만족 할만한 것이었다. 나는 이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가 사랑하는 동우회의 동지들과 함께, 앞으로도 민족화해와 조국 통일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고려항공에 올랐다. ✈

편집자주

지면관계로 6.15 대축전 공식일정 중심으로 간추려 실게 되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 문서자료실(www.yangsimso.or.kr)을 이용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필자는 재일동포로 고대에 유학중, 이른바 재일유학생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받아 13년 옥고를 치르고 나와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민향숙씨와 결혼을 했고 초기 양심수 후원회 운영위원을 했음. 현재는 재일본 양심수 동우회 대표로 일하고 있음.



❖ 정순택 선생님 위중하십니다 ❖



정순택 선생님 암진단.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정순택 선생님께서 지난달 18일 하복부에 이상 증상과 통증이 있어 동네 병원에서 탈장 진단을 받으셨었습니다. 19일 보라매 병원에서 외과 외래 진료 후 초음파검사를 하고, 26일 담당의로부터 탈장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9월 7일 입원, 8일 수술을 예약하였습니다. 검사 후 선생님은 입원일 자까지 조카분이 사시는 음성에 다녀오신다고 가셨으나 9월 3일 하복부 통증으로 음성 성심병원에 급히 가시게 되었고 장이 막히고 가스가 찼다하여 진단 후 급히 서울로 올라 오셔서 9월 4일 보라매 병원 응급실에서 CT촬영을 하였고 9월 5일 판독결과 탈장외에 간에 암세포가 전이되어있는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우선 탈장으로 인한 고통을 먼저 덜어드리자는 가족들의 뜻에 따라 9월 8일 예정대로 탈장수술을 하였고 수술 결과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간 등 여러부위에 이미 암세포들이 퍼져있는 상황으로,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선생님은 현재 보라매 병원 5217호에 입원중이시며 급식중이십니다.

❖ 고성화 선생님 회상기 - “통일의 한길에서 출판” ❖

비록 세계관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신념에 따라 치열하게 한 평생을 살아오셨다는 데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젊은 활동가들에게 귀감이 되겠기에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또한 이 회상기는 바로 우리 현대사의 단면이면서 민족운동의 상당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하겠다.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선각자 활동가들에 대한 객관적 실재성이 그렇고 저자가 활동했던 시대별로 사건과 객관 정세를 보완적으로 기술했기 때문이다. 고성화 선생님은 올해 90세의 고령이시다. 이 같은 회상기를 쓰실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건강성, 그리고 사회진보와 민족문제 등 사상이론적 체계의 박식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선생님의 평생 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남은 생애 신념의 고향에서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 추천의 글(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 중에서 -

저자 고성화 ○

1916. 8. 20	제주도 우도서 출생	1945. 10	귀향, 조선 공산당 우도 책임 비서 겸 면상임위원	1948. 12	부산시당 책임비서
1934. 8. 10	일본 나화상업학교 5년 중퇴			1949. 6. 25	피검, 2년형 선고
1935. 3. 1	우도 사립 보통학교 교원	1947. 4. 15	3.1절 28주년 기념일, 미군정 인민학살로 인한 탄압으로 부산으로 탈출	1951. 4. 10	출소
1937. 3. 1	교원 사임	1947. 4. 16	부산시당 4지구당 오르크로 활동	1955. 4	일본으로 가다
1937. 5. 1	함북자동차주식회사 경리사원 입사	1947. 10. 4	지구당 선택으로 활동	1959	재일본 교포 귀국으로 일본행 중지
1944. 7. 20	상기 회사 퇴사	1948. 3. 4	지구당 책임비서	1968. 10	당으로부터 소환
1944. 10. 1	조선미국창고 주식회사 정사원	1948. 7	부산시당 1지구당 책임비서	1973. 3. 16	피검
1945. 8. 15	조선미국창고 주식회사 퇴사			1993. 3. 6 ~	형집행정지 출소 현재에 이름

* 회원모두 구입하기를 바랍니다 * - 후원회 사무실에서 구입가능 -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 FAX : 02-888-4350 ■ E-mail : yangsimso@hanmail.net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기타()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 2005년 8월 25일 /민가협 조사 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이종화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울산구 43	미결
김익석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관련 집회	05-04-01	집시	1년6월	항소중	울산구 34	미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4-08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부산구 6019	미결
정재윤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4-16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부산구 6018	미결
이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크레인시위	05-05-17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부산구 6016	미결
이춘근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 5	미결
박승주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울산구 29	미결
강상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울산구 16	미결
금대현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 25	미결
최영철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5-23	업방, 폭력	2년	항소중	부산구 6008	미결
권혁수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크레인시위	05-05-28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부산구 6057	미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울산구 36	미결
김우용	노동자	기아자동차노조	경제특구반대시위	04-02-22	업방, 집시	2년6월	2005/12	청주교 65	기결
김웅직	노동자	민주노총(충북)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05-06-13	집시, 특공	1년6월	항소중	청주교 252	미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2-22	명예훼손, 정통법	8월	상고중	부산교 906	미결
구재보	노동자	세원테크노조	이현중열사 관련	03-12-22	폭력, 업방	1년6월+2년6월	2006/04	대전교 1959	기결
정석윤	노동자	㈜동진이공 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6-29	공방	8월	항소중	대구교 1865	미결
박용규	노동자	㈜동진이공 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6-29	공방	1년	항소중	대구교 1559	미결
엄기준	노동자	㈜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03-12-10	집시, 폭력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2999	기결
안기호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파업	05-02-13	업방, 폭력			울산구 24	미결
박태규	노동자	화심연맹	노동자대회(11.9)	03-11-12	집시, 폭력	1년6월+1년6월	2006/11	부산교 1406	기결
김정곤	노동자	LG정유 노조	파업	04-08-13	업방	3년	파기환송심	광주교 3356	미결
한현호	재야	고양청년회	송정리미군기지 철수시위	05-06-22	집시			광주교 3351	미결
이원표	재야	사회당(대전)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11-02	병역법	1년6월	2006/05	대전교 800	기결
문상현	재야	사회당(서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7-19	병역법			청주교 844	미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04-06-20	특가법	1년+6월	2006/02	원주교 891	기결
임성환	재야	아웃사이더㈜대표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09-08	병역법	1년6월	2006/03	영등포구 2579	기결
염창근	재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12-01	병역법	1년6월	2006/06	충주교 654	기결
최진	재야	작은누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6-28	병역법	1년6월	상고중	대구교 1557	미결
강태운	재야	전 민주노동당 고문	화합통일 사건	03-08-15	국보	6년	2009/08	대구교 90	기결
임재성	재야	전쟁없는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1-28	병역법	1년6월	상고중	서울교 1560	미결
이승규	재야	전쟁없는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7-28	병역법			수원교 813	미결
김영재	재야	전철연	강제철거반대(상도동)	04-01-19	공방, 폭력	2년	상고중	서울교 76	미결

채남병	재야	전철연(고양풍동)	강제철폐반대	05-01-31	폭력,공방	2년6월	항소중	의정부교 664	미결
조영귀	재야	전철연(수원망포)	강제철폐반대	05-02-17	집시,폭력	1년6월	상고중	서울구 2658	미결
남현희	재야	전철연(십정동)	청와대앞 1인시위	05-07-04	집시,폭력			서울구 74	미결
최진웅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13	미결
홍경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5-20	특공,공방			수원구 414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5-03	화염병, 치사			수원구 339	미결
김기준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01	미결
정형웅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37	미결
손정민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29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40	미결
정용표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30	미결
이병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25	미결
김완규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19	미결
유경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48	미결
이복만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28	미결
지광호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17	미결
방영철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46	미결
장광배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24	미결
김홍중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06	미결
이영자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157	미결
이재남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03	미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15	미결
배용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36	미결
이웅이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34	미결
한호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51	미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50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58	미결
강재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치사			수원구 321	미결
김희수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폐반대	05-06-08	폭력,화염병			수원구 338	미결
오태양	재야	좋은 벗들(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08-30	병역법	1년6월	2006/02	충주구 894	기결
유호근	재야	희망동네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2-17	병역법	1년6월		의정부교 1550	기결
우대식	학생	경희대	한총련불탈퇴(117)	05-08-13	국보			성동구 24	미결
임치윤	학생	동아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09-07	병역법	1년6월	2006/03	부산교 1655	기결
전위봉	학생	부산대	한총련불탈퇴(117)	05-08-13	국보			부산구 6017	미결
나동혁	학생	서울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08-31	병역법	1년6월	2005/12	서울구 2360	기결
이성한	학생	서울대대학원 졸	복한 방문	05-07-22	국보			서울구 22	미결
류형철	학생	전남대	송정리미군기지철수시위	05-06-30	집시,국보			광주교 5006	미결
조영민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5-17	병역법			성동구 596	미결

01 -----

● 반전평화의 신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다 구속되어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오태양씨를 면회하다. 안병길 목사님, 김 호현 운영위원, 권오현 함께하다.

● 공복 60돌을 맞이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들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60인 선언'이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었음. 선언에서는 ① 6.15공동선언 정신을 되살린 남북동반자 관계 정립 ② 노동, 환경 문제 해결과 자본 규제를 통한 내실있는 민주화 ③ 확고한 평화이념에 바탕한 남북사이의 군축논의 시작 ④ 이라크 파병군 철수와 아시아 상생의 공동체 모색 등을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비정규직 대책 마련 촉구하다

02 -----

●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은 청와대 부근 옛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자이툼 부대 이라크 파병 1년을 맞아 소속 단체 성원 등 7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자이툼 부대 철군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주최로 '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 8.15양심수전원석방 및 복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박석은 집행위원장 사회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여는말, 유영빈(수배 4년 02년 동국대총학생회장)어머님 박세하님의 호소말씀, 장경욱 민변 사무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정진우 NCC평화통일위원 등 수배해제 촉구발언, 우대식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모임 대표의 전면해제 투쟁계획 발표, 마지막으로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배해제모임 학생들은 푸른 수의를 입고 수배 학부모들은 소복을 입은채 각계각층 참가자,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등 500여명은 광화문까지 행진하고 정리집회를 하다. 김노진 서총련 의장 사회로 농성 수배 학생들의 결의발언, 송효원 한총련 의장의 수배해제 촉구발언 등이 있었고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NCC인권위 황필규 목사, 김미연(수배4년차 02년 경시대 총학생회장)의 어머니 류기자님, 범청학련 윤기진 의장의 부인 황 선씨 등 4명이 청와대를 방문, 김택수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면담하고 94명의 탄원서를 전달하고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사면 복권을 촉구하다. 한편 이날 수배모임 학생들은 NCC인권위원회에서 여의도 민주노동당사로 농성장을 옮기다.

03 -----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6.15공동선언 남북준비위 주최로 '백두한라 민족통일대행진단 발대식'을 갖다. 대행진단은 노동부분, 교육부분, 농민부분, 청년학생부분, 범민련과 해외단체 등 사회단체 통일선봉대 등으로 구성되었고 동서군으로 편성, 동군은 진주, 마산, 창원, 부산, 울산, 대구, 안동, 춘천, 의정부, 성남을 거쳐 서울로, 서군은 목포, 광주, 전주, 노근리, 대전, 청주, 수원, 인천, 서울로 입성하게 되다. 한총련 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총련 학생들 문예공연에 이어 백척남측준비위 상임대표의 발대식 인사말, 이어 서군단장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과 동군단장 김익식 6.15청학본부상임대표에 단기 전달이 있었으며 노래대 '우리나라'의 노래공연, 마지막으로 출정결의문을 범청학련 선봉대 조선대 05학번 김희자 학생과 재일한국청년동맹 도교본부 박명철위원장이 함께 읽다.

● 광복 60돌을 맞아 정부는 남 웨일즈의 '아리랑' 주인공이며 조선민족

해방동맹 등을 결성, 항일민족해방투쟁을 벌였던 김산(1905-38 본명 장지락), 김철수(1893-1986 조선혁명군 출신)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독립유공자로 선정 명단을 발표하다.

04 -----

● 민주노동당사로 옮겨 농성중인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모임 학생들 방문 격려하다. 해제모임에서는 한총련 관련 양심수 사면, 정치수배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하다.

● 민가협 579회 목요집회를 열다.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는말, 병역거부 평화네트워크 활동가 최정미 씨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석방부장, 오정연 씨의 편지글 낭독, 한총련 정치수배해제 모임 실천단장 이선미 학생의 정치수배해제 모임 활동보고 및 정치수배해제 촉구 발언, 아주대 사건 원심파기 재판결과보고 등이 이어짐.

●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4차 6자회담 10일째를 맞았으나 '비핵화'를 둘러싼 조미사이의 주장이 맞서 합의문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조선 측은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일뿐 평화적 핵활동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국 측은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해야한다고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지다. 또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에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관계정상화 등 신뢰감을 갖게 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다.

●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의원 22명이 립으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특별법은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자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의료 및 생활지원을 함으로써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다.

05 -----

● 계승연대 회의실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37차 상임대표자 회의를 열다. 보고안전에 이어 권오현 상임공동대표 진행으로 · 민족민주열사 보상 등 차별에 대한 대응문제 · 민족민주열사 묘역 및 민주화운동 계승사업간 건립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제안서 등 검토문제 · 계승연대 하반기 후원의 날 행사 등 심의하다.

● 남북당국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9개 경제협력합의서 발효문본을 교환함으로써 합의서를 발효시키다.

● 남북적십자사는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제11차 이산가족상봉 후보자에 대한 생사확인 결과를 교환하다. 북측이 의뢰한 후보자 200명 가운데 177명의 남쪽 가족 생사확인해 통보했으며 남측이 의뢰한 200명 가운데 140명이 북쪽 가족 생사확인을 알려오다.

● 백두한라 민족통일대행진 서군 50여명은 6.15남측위 전북본부와 함께 전주교도소에서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 석방촉구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다. 촉구대회를 마치고 이강실 전북본부 상임대표와 노수희 행진단 서군단장, 범청학련 학생대표 2명, 청춘넷 동영상기자로 구성된 면담대표단이 민경우 사무처장을 면회하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 백두한라 민족통일대행진단과 6.15공동위 부산분부는 부산역광장에서 민족자주 반전평화 결의대회와 거리행진을 했으며 저녁에는 6.15공동위 부산분부가 주최하는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부산통일한바당을 열다.

● 6.15남측준비위 전북분부는 전주 삼천도지에서 전북도민 3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백두한라 민족통일대행진단 환영식 및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전북도민축전'을 열다. 도민축전에서는 동원산동 푸른학교 '나무네' 공부방 어린이들의 울동,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학생들의 문예공연, 전북 여성농민회 노래패 '청보리사랑', 민족춤패 '출', 아름다운 청춘, 안치환씨 등 출연, 통일열기를 달구다.

● 국정원은 내곡동청사에서 옛 안기부 불법도청팀 운영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와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하다. 과거 정부 불법감청 실태보고에 의하면 중앙정보부 창설이후 유선 감청기구가 설치, 운영되었으며 60명 내외의 단규모로 불법적인 유선 전화감청을 했으며 문민정부시기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96.1월부터는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4세트로 도입, 99.12 아날로그 휴대전화서비스가 중단될 때까지 불법감청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도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개발운용하면서 불법감청했고 2002년 3월 통신비밀법 개정과 함께 감청업무 절차가 대폭 강화되고 16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불법 감청논란이 거세지면서 완전중단되었다고 하다.

0 6 -----

● 백두한라 민족통일대행진단 400여명은 오후 대전에 입성 대전시민공원에서 6.15남측준비위 대전충남분부가 준비한 환영대회에 참석하고 대전역까지행진하며 거리홍보전을 펴다.

0 7 -----

● 6.15남측준비위 대전충남본부 주최로 8.15광복60주년 기념 평화통일 염원 대전총남 시민군 한마음 걷기대회가 진행되다. 대행진단 등 500여명은 대전 시청앞에서 남문시장, 교육청4거리, 세무사거리, 스티4거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동장까지 2.5km 행진하다. 이어 대전충남 통일문화제가 열려 전교조노래패, 철도노조연 등 노래공연과 울동,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공연 등이 있었음.

● 광주 금남로 YMCA무진관엿 통일연대, 민중연대, 전대인 대책위 등 공동으로 '8.15특별사면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문화제'가 열리다. 남측연 의장 사회로 전남대 울동패의 문예공연, 김병균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반대 광주전남대책위 대표의 연설, 권오현 양심수 후원회장의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촉구발언, 민기채 운영일 석방을 위한 전대인 대책위 오창규 공동위원장의 활동보고, 윤영일씨 여동생 윤미량씨의 사려발표,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 석방 영상보고, 민기채 운영일씨의 편지낭독, 오종렬 전국연압 상임대표의 격려말, 남측연 노래패 '한반도'의 노래공연, 마지막으로 박한균 전남대 총학생회장의 성명서 낭독 등이 있었음.

● 6자회담 주최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의장은 6자회담 휴회와 관련 의장 성명을 발표하다. 성명은 '6자회담은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으로 Corea반도 비핵화와 목표에 관해 진지하고 실용적이며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가졌으며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어냈다'며 '아직 남아있는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잠시 휴회를 갖도록 했다'고 발표하다.

● 6자회담 휴회 선포가 있는 뒤 북측 수석대표 김계관 부상은 북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휴회에 따른 입장을 밝히다. 김계관 부상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조미가 비핵화 방향으로 마주걸어야한다. 우리는 국제적 비핵화 규범에 맞게 행동하면 되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는(미국은) 평화적 핵활동권리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실현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미국과 조선반도 한 부분인 남측이 할 일이 있다. 미국이 할 일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했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치지 않겠다고 공약과 함께 이를 믿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남조선에 쏘워주고 있는 핵우산을 철하해야하고 남조선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을 검증을 통해 확인할 의지가 있어야하며 남조선 밖으로부터 핵무기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담보도 주어야한다'고 하다.

0 8 -----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년 6월형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을 면회하다. 민경우 사무처장은 전주로 이감된 뒤 화원에 출역하고 있으며 8.15사면에서 특히 강태운 선생님을 비롯한 양심수 전원석방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음.(권오현 후원회대표가 다녀왔음)

●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모임 학생들이 '정치수배학생들의 불기소 처리와 8.15특사에서 양심수 석방과 복권을 요구하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다. 열린우리당사에서는 우대식 수배모임대표(수배3년 한총련 11기 대변인)와 유영민(수배4년 02년 동국대총학생회장), 이현민(수배3년 연세대 총학생회장)등 세명이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을 면담했으나 수배해제조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이 그 자리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다.

● 평택시 평성읍 대추분교에서 지역주민과 백두한라 민족통일대행진단 소속 노동자, 범청학련, 민주노동당, 여성통선대 등 700여명은 '주한미군철수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결의대회'를 열다. 이어 미군기지에 접근시위를 하면서 경찰의 축력지지로 몸싸움과정에서 일부시위자들은 경찰방패에 찌혀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하다. 행진단 등은 종이비행기를 떨어 미군부대 안으로 날려보내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민중들이 고통없이 살 세상을 기원하다.

0 9 -----

● 정치수배해제모임 학부모들과 실천단원 등 열린우리당을 방문, 단식농성학생들 면회를 요구하며 항의규탄시위를 하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대표 규탄집회에 함께하며 정치수배조건없는 전면해제를 촉구하다.

● 강릉 경포대 해안 모래사장에서 백두한라 민족통일대행진단과 강릉시민 등 1000여명은 '강릉 해안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다. 청학분부, 공무원노조, 범민련 미군철수통일선봉대, 한국대학생연합 등이 출연 울동과 노래 등 문예공연으로 통일 열기를 달구었고 노래패 '우리나라'가 출연, 대형진단에힘을 불어넣다.

1 0 -----

● 과점정부청사 앞에서 불교인권위, 사회개혁교무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KNCC인권위원회 등 9개 종교단체로 구성된 범종교인단은 한총련 정치수배해제 촉구기자회견을 열다. KNCC인권위원 김성복 목

사 사회로 정진우 목사의 여는말, 유영빈 수배학생 어머니의 사례발표, 전국 사제단 김영식 신부, 실천불교 승가회 혜조 스님, 원불교 인권위 정상덕 교무 등의 수배해제 촉구발언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의 8.15광복절 양심수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 정치수배해제 발언이 있었고 임광빈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협의회 총무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음.

● 광화문 우체국 6층 '북한자료영상실'에서 양심수후원회 주관으로 '이북영화보기' 모임을 갖다. 이번 영화는 '돌아오지 않는 밀사' (신필름 영화촬영소, 1984년제작, 120분상영)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7차년도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다. 이북영화보기를 함께 한 뒤 가진 회의에서는 7월 활동보고, 재정보고에 이어 8.15대축전 행사 관련 양심수후원회의 조직적 참여문제, 재정적자해소문제 등 논의하다.(김지영, 조명희, 이덕형, 한찬욱, 권오현, 김은)

● 8.15양심수전원석방과 사면복권,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민가협 580회 목요집회를 열다.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여는말, 권오현 공동의장과유선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복권 등 촉구 발언등이 있었음.

● 백두한라민족통일대행진단과 30여 단체로 구성된 '미군강점 60년 청산과 9.8인천 범국민대회 성사를 위한 인천지역 준비위원회'는 동인천역 광장에서 6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반미자주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 자유공원까지 행진을 하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1돌을 맞아인터넷 포털인 <미디어 다음>과 인터뷰에서 '일방적 권리로 농업용, 의료용, 발전용 등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북한이 마땅히 가져야한다고 본다'라며 '우리는 (모든 핵 활동을 부정하려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다.

1 2 -----
● 영등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모임과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등 300여명은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이적규정철폐, 정치수배해제 촉구대회'를 열다. 정재욱 정치수배해제모임 대변인 사회로 수배학생들의 농성투쟁보고, 김지하 범청학련 통선대장의 결의발언, 우대식 등 열린우리당사 농성학생들과 전화 인터뷰,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송효원 한총련의장의 국가보안법폐지,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촉구발언이 있었음. 마치고 권오현, 정재욱과 학생대표 2명, 우대식, 유영빈, 이현민 등 단식농성 학생 면회하다.

● 강태운 선생님 석방에서 제외, 아쉬운 특별사면

정부는 8.15광복절 60돌을 맞아 420여명명에 이르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발표하다. 이른바 공안사법 사면에서는 국가보안법 관련 273명(한총련 204명)을 사면 대상으로 하여 민 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이동진 경성대 총학생회장(7기 조총련위원장), 박대성 경원대생, 이덕용 경원대생, 민기채 전남대생, 고천만(전노련)등은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성철(전해투), 김성봉(한신대, 노동자의 함), 윤영일(전남대), 이종남(경원대), 인태순(전철연), 조현수(청송농민회)씨 등은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 강태운(민주노동당 교문), 구재보(세원테크 전 노조위원장), 김우용(기아자동차노조)씨 등은 특별감형을, 이종린 범법

본명예의장 등에 대한형선고 실효특사 및 복권, 하영옥(민혁명당사건), 문규현 신부 등에 대한특별 복권 조치하다. 또한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총련 정치수배자42명 가운데 18명에게 불구속 수사로 19명(한총련의장, 중앙상임위원 등)에게는 자진 출두할 경우 관용할 것이라고 하다.

● 8.14~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할 북측대표단 100명과 통일촉구 선수단 등 그리고 당국대표단 17명의 명단을 보내오다. 민간대표로는 6.15공동위 위원장인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장을 단장으로 김정호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 리충복 민족화해협의회 부위원장, 성자립 김일성종단대학총장 등이, 당국대표단은 김기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최승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보건성 부상, 최창일 문화성 부상, 김수남 내각사무국 부부장 등 대표와 자문위원으로는 림동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명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 등이었음.

● 매창치 미군 폭격장이 1951년 조정된지 54년, 매창치 미 폭격장 철제를 위한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폐쇄 주장을 벌여온 지 18년만에 폐쇄되다.

1 3 -----
● 대검찰청 앞에서 국보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변 등 3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대검찰청의 한총련 정치수배해제조치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종교단체 입장발표 및 한총련 수배자 집단 출두 기자회견'을 열다. 이승헌 민주노동당 자주통일국장 사회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송효원 한총련 의장, 김규철 범민련 서울시연합의장, 유선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조건 없는 수배해제 촉구발언이 있었고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으며 이영훈 수배학생의 검찰에서 한총련의 정당성을 당당히 싸울것이라는 집단 출두 입장발표가 있었음. 마치고 이영훈(한신대), 김현주(충청총련의장), 고인규(인천대), 전위봉(부경총련의장), 김준형(경성대) 등 권오현, 유선희 대표와 학부모들 함께 검찰청에 들어가 당직 공안검사 만나 불구속 수사원칙강조하다.

● 8.15민족대축전에 참가할 해외본부 대표들이 속속 입국하다. 재일한 국민주통일연합, 재일조선인총연합, 재일본 양심수동우회, 코리아 NGO센터 등 총련 소속 35명과 재일본 한총련 소속 25명 등 60명이 인천공항에 도착, 범민련 남측본부 환영단의 마중을 받다. 특히 공안당국으로부터 입국불허를 당했던 6.15공동위 해외본부 박용 사무국장과 범민련 재일조선인총연합 임태광 의장, 유럽지역 준비위 이희세 단장을 비롯 4명과 한민족유럽연대, 제독일협회 범민련 유럽본부, 민주노동당 유럽위원회, 자통협 유럽위원회 등 12명이 입국하다.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백두한라 민족통일대행진단의 노동자, 여성, 범청학련, 농민, 범민련 등 통일선봉대 등 700여명은 '한반도 평화실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주한미군 철거명령서'를 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폭력저지로 전달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리집회를 마치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기다.

● 용산철도웨딩홀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리거레 하나되기운동본부 등 공동주최, 민족21, 통일뉴스, 민변 등 후원으로 '조국광복 60년 고국방문단 환영과 연대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1부 환영마당은 한총측 집행위원장 사회로 함세웅, 최병모 대표 등 환영사, 노래패 '꽃다지' 환영공연, 고국방문단 광동의 대표를 대신해서 김정부 대표의 인사말, 고국방문단 문화공연 등이 있었음. 2부 순서는 1층 연회실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류와 우의를 나누다. 오종렬, 이규재 대표의 건배사도 있었음. 이 환영식에는 '빈곤의 세계화' 저자 미셸 초스도프스키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교수, 미켈플레대학 종교학부 존 레인드 박사, 로마 교황청 '종교와의 대화' 대사 레오나드 스위들러 박사, 이슬람 국가연합 파견 목터르 라마니 UN대사 등도 함께하다.

14

민 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전주교도소에 서 출소, 가족 친지와 법민련, 전북 통일연대 등 사회단체 성원들의 마중을 받다. 이종린 법민련 명예의장, 이강실 전북통일연대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하연호 최고위원 등 환영말과 민 경우 사무처장의 출소인사 등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은 사무처장 함께함. 한편 이날 민기재, 윤영일, 이동진, 이덕용, 이종남, 박대성, 김성봉 등 한총련 등 간원 학생들과 강성철 전해투 소속회원, 인태소 전철연 소속 양심수도 특사로 출소하다.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할 북측대표단(단장 안경호 공동위원장) 100명과 당국대표단(단장 김기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7명과 축구대표팀 65명이 두 대의 고려민항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관련 단체 기관의 마중을 받고 곧 숙소인 셰리튼 위커힐에 도착, 백두한라 대행정단 등 1000여명의 뜨거운 환영을 받다. 호텔에서는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이 마중하다.

김기남 북측당국대표단장, 안경호 6.15북측위 공동위원장 32명이 이봉조 통일부차관 등 안내로 흑석동 현충원을 방문, 헌화와 분향없이 묵념하는 것으로 참배(참관)하다. 림동욱 북측 당국자문위원은 '이념을 초월해야한다', '언젠가는 넘어야할 관문이다'라 했고 안경호 공동위원장은 '남북대결의 상징이었지만 그런 대결의 잔재를 쓸어버려야한다', '과거의 대결관습을 청산하고 화해협력력을 하는데 전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밖 큰 길에서 8.15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가할 남북해외대표단이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채화된 성화를 합화하면서 북측, 해외, 남측 순서로 경기장까지 민족대행진을 하다. 행진에 앞서 북측 최창만 직총부위원장, 해외측 석명순 6.15공동위 독립국가연합 준비위 명예위원장, 한상철 남측위 공동대표의 대행진에 따른 연설이 있었고 대형 단일기를 앞세우고 연도에 서있는 수백명 청년학생들의 '조국통일', '우리민족끼리', '우리는 하나' 등 연호를 받으며 입장하다. 경기장엔 5만여 참관단과 일반시민으로 가득차 있었고 대표단이 입장하자 단일기를 흔들며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다. 성화가 봉송되고 단일기가 게양되었으며 '광복60년 이제 남북이 함께 민족공동번영시대를 열어나가자'(남측),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자'(북측)는 큰 현수막이 걸려있었음. 이어 이석대 남측 준비위 공동대표, 김성철 북측준비위 부위원장, 김지영 해외측 위원(재일 한총련)의 공동사회로 개막식이 열리다. 백낙청 남측준비위 상임대표의 개막사, 김기남 북측당국자 대표단 단장(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문동환 6.15공동위 해외공동위원장, 정동영 남측 당국대표단 단장(통일부장관)의 축하연설이 있었음. 개막식에 이어 남북통일

축구남자 경기가 있었으며 남측이 3:0으로 이기다. 경기가 끝나고 남북 선수들은 단일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며 승패와 관계없이 남북이 하나임을 보여주다.

경희대 야외극장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주노동당이 공동주최하여 '조국광복 60주년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결의의 밤' 행사가 소속 회원 등 2만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통일연대 한총측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다. 김해경 민주노동당 대표의 대화사, 해외대표단(한통련 등) 21명이 무대에 올라 손형준 단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8.15특사로 출소한 민 경우 사무처장, 이동진 7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이 인사말, 백두한라 민족통일대행진단 어린이 통일선봉대원의 노래와 율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의의 밤 행사를 마치다.

같은 자리에서 민주노동당과 전농이 함께하여 '주한미군철수, 민족공조를 위한 전국 노동자 농민 통일한마당'이 열렸으며 이수호 민주노동당 위원장과 문경식 전농의장이 '민족통일선언'을 발표하다. 또한 경희대 크라운관 앞에서는 반미여성회 등 여성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여 '여성이 행복한 통일 5회 여성통일한마당'이 열렸으며 경희대 대운동장에서는 법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한청이 함께하여 1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3대공조 결의대회'를 열다. 이경원 법민련 사무처장 사회로 이규재 법민련 의장의 대화사, 민 경우 전 사무처장의 출소인사, 전상봉 한청의장의 정치발언, 통일선봉대 환영과 김광옥 통선대장의 보고, 김영송 통선대원로발언 등이 있었으며, 범청학련 통선대의 문화공연과 김지하 총대장의 결의발언, 송효련 한총련 의장과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경희대에서의 모든 결의대회 등은 장소 변경으로 자정 넘어 진행되었음)

양심수 위원회는 8.15 민족통일대축전에 조직적으로 참여했음. 권오현 회장과 김호현 운영위원이 대표단으로 (운영위원 결의로), 조명희, 이득형, 송창학, 김혜순, 이현근, 노혁, 이영민, 이용준, 김영철, 이승미, 이재필, 변의숙, 장재영, 김희선, 강덕환 회원 등이 참관단으로 개막식과 축구경기, 결의대회 등 14일 행사와 15, 16일 행사에 함께 했음. 경희대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결의대회를 마치고 대전 양심수후원회원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운동, 그 밖에 공동행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15

장충체육관에서 남북해외 대표단과 4천여 참관단이 함께한 가운데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가 열리다. 이수일 남측준비위 공동대표 등 남북해외대표 공동사회로 백낙청, 안경호, 광동의 남북해외 공동위원장의 대표연설이 있었고 이강실 6.15남측위 전북본부대표, 6.15북측위 홍광성 언론분과위원, 6.15해외측위 중국지역준비위 문태환 부위원장이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모두 마치다. 대회를 마치고 남북해외 대표단은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옮겨 옛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답사하고 '9사육' 앞에서 6.15남측위 문경식 농민본부 공동대표, 6.15북측위 김명철 농업근로자 분과위원장, 6.15일본지역위 노차분 대표위원의 '일제 패망 60년에 즈음한 특별성명'을 함께 읽다. 성명에서는 '과거사 왜곡정당·전범 참배중단 및 희생자 피해 당사국에 대한 국가적 배상과 보상·대북제재 중단 및 조일평화선언 실천 등을 일본정부에 촉구하다. 이어 우후에는 다시 장충체육관에서 3000여 참관단이 함께한 가운데 체육오락경기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 5시부터는 세종문화회관으로 옮겨 남측이 마련한 무용극 '무애지무'를 관람하다. 선녀춤, 한량무, 섬광(검무), 부채춤, 승무, 타

의예(장고춤), 진도북춤, 천명심수, 광란의 제단 등 '서울무용단'의 공연은 역동적이고 민중적인 춤사위를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는다. 이어 저녁에는 남북해외대표단과 당국대표단 등 위키힐 '비스타홀'에서 8.15 대축전 축하연회에 함께한다. 김중수 남북준비위 공동대표 사회로 한양원, 정세현 남측위 상임고문의 환영사, 북측 안경호 위원장, 해외측 이희세 유럽공동위 자문위원이 답사를 하고 건배를 제의한다. 연회는 남북해외대표들의 자연스런 대환영장이 되었으며 1시간만 정도 이어졌음.

해 해동대 대학에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함께하여 '8.15반전평화 자주통일 범국민대회'를 1500여 소속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다. 통일연대 오종렬 상임대표의 대회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수호 위원장의 결의발언,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7천만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한다. 이어 100여명의 종물패를 선두로 '자주통일의 배', '파도진', '펼침작진', '깃발진', '삼각깃발진'이 뒤따르고 통일열차 초형물, 국가보안법철폐 대형 등 각종 표현물이 등장한 가운데 종각까지 행진하고 정리집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13일 간전국을 누비며 통일열기를 달군 백두한라 민족통일대행진단 해단식을 가졌음.

남 8.15대축전에 참가한 남북당국대표단은 효창공원 안에 있는 백범기념관을 방문 김구선생의 아드님 김신 백범기념사업회장의 영접을 받는다. 김기남 북측 당국대표단장은 김신 기념사업회장으로 부터 '백범일지'를 선물로 받고 '백범선생의 민족주의운동은 공산의, 사회주의 투쟁과 인연을 맺고 있다'며 '김일성 주석이 국내 진격투쟁인 보천보전때 김구선생이 제일 먼저 감격하시고 사절을 김일성 장군께 보냈다'고 했으며 이는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한다.

남 분단 60년만에 처음으로 남과 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서울과 평양, 평양과 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도시를 연결한 화상상봉이 있었다. 이 날 화상상봉은 남측 상봉자 20명, 그 동반 가족 57명이 북측 가족 50명을, 북측 상봉자 20명이 남측 가족 79명을 만나다.

16-----

남 8.15대축전 3일째를 맞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정치인,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등 부문모임이 진행되다. 남북정치인 간담회는 위키힐에서 남북관계 법령정비와 민족공동 핵문제 등을 주제로, 북측에서는 안경호 북측위 위원장과 김정호 부위원장, 성지림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문병록 사회민주당 부위원장, 림용철 사무국 부국장, 라운석, 김광철 위원 등이, 남측에선 장영달, 선병렬, 김명자, 유선호, 김희선, 한명숙, 최성, 유기홍(열린우리당), 권영길(민주노동당), 김효석(자민련), 원희룡(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가하다. 노동, 교육부문은 잠실 올림픽파크텔에서 400여명 노동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북측에서 최창만 원형주 노동자분과 부위원장과 김성철 교직원분과 위원장이 남측에선 이수호, 이용옥 양대노동위원장 등이 함께하다. 농민부문은 서대문 중앙농협 신청사에서 문경식 전농의장의 환영사, 김명철 북측 농업근로자분과 부위원장의 답사에 이어 양측의 농민대표들이 함께하여 민족농업식량주권에 대한 간담회를 갖다. 청년학생부문은 경희대 평화홀에서 남북해외대표단 40여명과 한총련, 한청 등 청년학생 2000여명이 함께하여 미래 조국을 이끌 청년학생들의 역사적 과제를 토론했다. 자주통일 재미청년 협의회 유지영씨 사회로 북측에서는 조영민 범청학련 북측본부 사무국장, 주성일 조선학생위원회 부부장, 박경의, 이동혁 등 청년분과위원이, 해외에서는 재일 한국청년동맹 문세현 통일위원장,

문태환재중 조선인 청년연합회 위원장 등이, 남측에서는 김익석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송효원 한총련 의장 등이 함께하며 민족통일선언을 채택하다. 여성부문은 불광동 여성개발원에서 북측에서는 김경옥 여성분과위 부위원장, 박영희, 서옥선, 박철순 등 여성분과위원, 전영애, 장금숙 6.15북측위 위원 등이 참석했고 일본지역에서는 로차분, 김지영, 신분남, 권경애, 김영생, 안병옥, 권영숙, 신국강 위원이, 미주지역에서는 조명지 위원장, 이화영 부위원장, 중국에서는 리순남, 김영우 위원, 유럽에서는 옥복자 공동대표, 권옥선, 신옥자 위원이 호주지역에서는 함정희 위원이 함께 하여 6.15공동선언이행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토론했다. 시민사회단체부문은 위키힐에서 북측에선 정덕기 북측위 부위원장, 장해명 문학예술분과 부위원장, 김응렬 북측준비위 위원, 정형일 환경분과 부위원장 등이, 남측에선 이석대 남측위 공동대표,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노정선 YMCA통일위원장,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등이 함께하며 공동선언이행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토의하다.

남 남북해외대표단과 당국대표단 등 150여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 본회의장 등을 돌아보고 국회 중앙홀에서 국회의장 주치의 환영오찬모임에 함께하다. 북측에서는 김기남 당국대표단장, 안경호 6.15공동위 위원장, 림동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익 조선적십자사 부위원장 등이 해외에선 광동의, 문동환 공동위원장, 남측에선 김원기 국회의장, 문화상 열린우리당 대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김혜경 민주노동당대표, 김학원 자민련 대표와 김덕규, 박희태 국회부의장, 임채정 통일외교통상위원회장과 70여 의원이 함께하다.

남 김기남 북측 당국대표단장, 안경호 6.15북측위위원장, 림동욱 조평통 부위원장, 최승철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 북측 대표들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문병하다. 김기남 단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선생님과 사모님께 인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라 했으며, 김 전 대통령은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위원장님께 안부 전해주시시오' 등 인사를 나누었으며 기자들 없이 30여분 면담시간을 가졌음. 김기남 단장은 '완쾌해서 사모님과 함께 꼭 평양에 오시라'고 방북 초청했음 김 전 대통령은 '좋은 시기에 연락드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최 비서관이 말함.

남 남북해외대표단은 효창공원 백범 기념관에서 '겨레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보고회'를 열다. 6.15공동위가 주최하고 겨레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위원장 문명호, 홍윤표)가 주관하여 통일맞이 장영달 이사장의 인사말, 최총북 6.15북측위 부위원장, 이혜정 남측위 상임고문, 차상보 6.15공동위 해외측위 부위원장 등이 축사를 하다. 겨레말 큰사전 편찬방향에서는 민족 고유유산 총망라·엄정한 고증·각도의 방언 용례를 올리고·시대 발전에 맞게 전자사전화 하고·삼십만개 이상 어휘를 담을 것이라고 하다. 마지막으로 북측 정순기 편찬위원의 폐회사가 있었음.

남 남북해외 대표단과 당국대표단 그리고 참관단과 시민 등 1만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 폐막식이 열린다. 김숙임 6.15남측위 공동대표, 강지영 6.15북측위 종교분과위원, 김현환 6.15해외측위 위원 등 공동사회로 폐막을 알리자 참석자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호하다. 이어 김정호 북측위 부위원장(문학예술분과위원장), 김수식 해외측 부위원장, 법장스님(남측위 명예대표) 등 대표연설과 안경호 북측위원장이 폐막사를 하다. 이어 진행된 남북통일 축구 여자경기에서는 북측이 2:0으로 이기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 남북해외대표단은 경기장 부근 킥박스 3층 그랜드 볼룸에서 8.15대축전 마지막 행사인 환송연회에 함께한다. 이해찬 총리가 인사말과 함께 '우리는 하나다'라며 건배를 제의했고, 이어 박용길 남측위 명예대표가 환송사를, 북측위 성지립 부위원장(김일성종합대학 총장)과 장진만 해외측 대양주 준비위원장이 답사를 하다. 대표단들은 테이블마다 '자주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 축배를 함창하다. 자리를 옮기면서 폭넓은 교류를 진행한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운영위원이 정식 대표로 함께하고 권오현 대표가 함께하며 북측과 해외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다. 연회는 10시 30분쯤에 끝나고 준비된 차량으로 서울로 이동하다.

● 8.15민족대축전 폐막식을 마친 북측 당국 대표단 김기남 단장과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은 항공기를 이용, 경주로 출발, 이튿날 아침까지 석굴암, 불국사, 천마총, 안압지 등 답사하다.

● 분단 60년 만에 북측 화물선 황금산호와 대동강호(9000톤급)가 남북사이 해상 합의에 의해 제주해협을 통과하다.

17-----

● 김기남 북측 당국 대표단장과 림동욱 조평통 부위원장, 최승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리현 아태위 참사 등은 정동영 장관 등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 노무현 대통령을 접견하다. 이 날 청와대 오찬모임에는 당국 대표단 외에 안경호 6.15북측위원장과 백낙청 남측준비위 상임대표도 함께하다.

● 대축전 마지막 날 남북해외대표들은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크게 무찌른 항주대첩 현장인 행주산성을 답사하며 충장공 권을 장군 동상에 묵념하고 대첩기념관 등을 둘러보았으며 오후에는 창덕궁 후원, 창경궁 등을 답사하다.

● 3박 4일 동안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 모든 일정을 마친 6.15공동위 북측 대표단과 축구대표 그리고 당국 대표단은 숙소인 위커힐을 떠나 인천공항에서 고려민항 편으로 평양으로 떠나다. 호텔 주변과 공항에서는 남측 대표단과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서충련 학생 등 수백명이 단일기를 흔들며 환송하다.

● 민족경제론 등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 박현채 선생 10주기를 맞아 천안공원묘지 고인의 묘소에서 옛 지인들과 후배 친지들이 모여 고 박현채 선생 10주기 추모식이 있었음. 서울과 공주 등에서 온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박중기 추모연대 상임대표와 박영호 교수 등의 추모사와 문병한 시인의 추모시 낭송 등이 있었음. 고인은 생전에 양심수후원회에 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웅산철도 웨딩홀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최로 '범민련 해외본부 인사초청 환송모임'이 있었음. 1부 행사는 웨딩홀 2층에서 이경원 사무처장 사회로 해외지역단위 참가자 소개와 함께한 전국연합, 전농, 4월혁명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청, 한총련, 양심수후원회 등 참가자 소개가 있었고 이어 이규재 의장의 환송사, 그리고 해외 대표를 대신한 광동의 6.15공동위 해외측 공동위원장의 답사가 있었음. 이어 각 지역별 대표단들의 소개와 대표의 인사말이 있었음. 범민련 미주본부 양은식 의장이 유태영 공동의장, 이민영 부의장, 이화영 대외연

락부위원장(고 서정균씨 부인), 이태화(치과의사·박사), 오영철 시가고 지역 부의장, 정순태, 왕영운, 배강호 대표들은 소개하고 답사를 했으며, 유럽본부 이준식 대표(시인)은 이지숙 동포협회 회장, 신옥자 중앙위원 등을 소개하며 인사말을 했음. 일본지역에선 양동민 의장과 최철교 전 부의장 등의 인사말이 있었고 재일 조선인 총연합 소속 성원으로는 박희덕 재일본 조국평화협회 의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의원)의 답사와 전호근 범민련 부의장, 강태완 조국평화통일협회 간사, 이종환 상임고문 등을 소개했음 이어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출소인사, '휘파람', '희망새' 등 노래패의 환송 축하공연이 있었음. 2부순서는 1층 만찬장에서 뷔페식 연회가 이어졌음. 양심수후원회에서 김호현, 조명희, 이정태, 소수영, 임미영, 한찬욱, 김은 차장이 함께 했으며 특히 초기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을 했으며 지금은 일본에서 양심수 동우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철 선생과 부인인 향숙씨와 함께 옛이야기를 나누었고 재일교포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일본으로 가신 최철교 선생님 등 재일 양심수 동우회와 양심수후원회원들 기념촬영도 있었음.

18-----

●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계승연대 주최 동아투위, 원풍모방, 동일방직, 전교조원거추 등 주관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조치 관련 철야노숙농성 정리기자회견'을 열다. 80년도 해직 언론인, 원풍모방, 동일방직, 전교조 등 3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권오현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여는말, 정종렬(우리는행), 박순희(원풍모방) 등 해고해직당사자들의 북적북적구발언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북적투쟁을 벌일 것임을 다짐하며 정부당국에서 대책기구 구성할 것을 촉구하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58회 목요일집회를 열다.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는말,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가채, 윤영일, 이덕용 한총련 관련 학생, 강성철 전해투 소속출소자, 유영빈 정치수배 4년에서 풀려난 동국대생 등 출소인사를 하다.

● 현대 아산은 북측과 협의를 벌여 '오는 8월 26일, 9월 2일, 7일 3차례에 걸쳐 개성 시범관광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다. 시범관광은 한번에 500명씩 당일로 하며 선죽교, 고려박물관, 공민왕릉, 왕건왕릉, 영통사, 박연폭포 등을 참관할 것이라고 하다.

19-----

●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평택 주민들과 세종대 총학생회, 교직원노조 등은 평택미군기지 확장 용도로 부지 매각을 결정하려는 대양학원(세종대 법인) 이사회를 열지 못하도록 회의장을 막아내다. 대양학원은 평택부지 중 41만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28만평이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에 포함되고 있었음.

20-----

● 개성 자남선 여관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합의 사항을 발표하다. 지난 18~19일 동안 열린 회의에서는 ·북측 협동농장 조성 지원 ·종자 관련 사업 지원 적극협력 ·공업과 학기기술분야 협력 ·축산 과수 야채 잡업 특용작물 분야 협력 사업 ·양묘장 조성, 산림 조성 지원 협력 등 7개 사항을 합의하다.

21-----

● 양심수후원회 8월 산행의 날. 이 날은 사월혁명회와 범민련이 함께하여 앞으로 계속 세 단체가 함께할 토대를 마련했음. 4호선 당고개역에

모여 불안산 정상에 오르는 왼쪽 길을 따라오르다. 80이 넘는 번속 현 선생님으로부터 초등학교 김건우 어린이까지 모두 25명이 함께하다. 구름이 좀 끼었고 산림 속을 걷는 무덥지 않은 날씨여서 산행에 매우 좋은 날이었음. 정상 못미처 큰 마당바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계곡을 따라 폭포 쪽으로 내려오다. 마치 야외교육장처럼 넓은 터를 찾아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다. 시원한 이동막걸리에 김호현 운영위원이 평양에서 사 온 찹쌀 술을 가져와 입맛까지 돋구게 하다. 식사를 마치고 '오수'를 갖기로 하고 그동안 조금 늦게 떠난 강정구 교수 마중을 위해 이용준, 이봉주 회원이 산을 내려가다. 이 시간을 이용 김장현, 이규재, 김재선, 범민련 후원회 청년회원 3명, 김재선 선생 아드님인 김백현, 서미라, 김건우, 권오현 등 불안산 정상 등반에 나서다. 정상(503m)에 오르니 구름 한 점 없고 멀리 팔당댐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맑은 날씨였음. 다시 모두 점심 먹은 자리로 돌아왔을 때 강정구 교수도 도착. 곧 강정구 교수의 8.15대축전, 6자회담, 평화협정 등 최근 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논리의 특강을 듣다. (강의에 앞서 참가자 모두의 소개시간이 있었음) 이어 미리 준비해 온 막걸리와 맥주, 걸맞은 안주를 나누어 놓고 즐거운 뒷풀이 시간을 갖다. 범민련 후원회원들의 울통과 노래, 이용준 회원의 산유가, 불안산 계곡을 흔들었음. 4시 30분 폭포계곡을 따라 하산. 당고개역 부근에서 간단한 2차 뒷풀이를 하고 헤어지다. 함께하신 분들 - 정병호, 김장현, 노중선, 한찬욱(사월혁명회), 이규재, 김세호, 오은주, 정현경(범, 범후원회), 신현익, 이득형, 박철민, 이용준, 류종인, 유인호, 김재선, 김백현, 이봉주, 김교영, 송세영, 장재영, 번속현, 강정구, 김호현, 서미라, 김건우,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2.2

창덕궁 옆 실천불교승가회 사무실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대표회의를 갖다. 9.2일 비전향장기수 1차송환 5돌을 맞아 '비전향장기수 송환 5돌 기념 및 2차 송환촉구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송환운동 관련 의견을 나누다. 마치고 대한적십자사를 방문, 23~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적십자회담에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의제로 할 것을 촉구하다. (권오현, 권낙기, 노진민)용산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 사회진보연대, 범민련 남북본부 등 공동으로 '을지 포커스렌즈(UFL)연습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이 연습이 주한미군의 아태 신속기동군으로서의 능력을 시험하고 중국에 대한 포위 봉쇄와 이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다. 한미연합사는 8.22~9.2일까지 주한미군 5000여명, 해외주둔미군 5000여명, 한국군 군단, 합대사령부, 전투배행단 등이 참가하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한다고 발표했었음. 이어 미대사관앞에서도 통일연대 민중연대가 함께 하여 '평화와 통일을 파괴하는 한반도 전쟁연습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음.

민주노동당 김해경 대표 등 지도부 18명이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을 받아 4박 5일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간다. 민주노동당은 '남북교류 활성화와 정당, 정치인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6.15시대와 남북정당의 역할'이란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갖고 만수대의사당 조선사회민주당사, 쑥섬 등 여러 곳을 참관할 것이라고 하다.

전국교직원노조, 민교협, 학단협, 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등 교수단체들은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기고한 강정구 교수의 시론과 관련 보수단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

서를 내다.

2.3

서대문구 창천교회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고난모임)이 주최하여 재독 통일운동가 이영빈 목사와 부인 강순환 선생의 저서 '경계인'의 출판기념회가 열리다. 이영빈 목사는 1955년 서독에 유학한 뒤 고국에서 역대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면서 '조국통일 해외 기독교자회'를 발족시켜 해외 통일운동단체로는 최초로 이북의 기독교인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여러차례 평양을 다녀오기도 하여 고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이번 8.15대축전에 6.15유류명 명예의장과 자문위원 자격으로 5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음. 출판기념회에는 이 목사와 김리교 신학교 동기생인 박순경 교수 등 70여명이 함께 했으며 34년 만에 고국을 찾은 '자주' 전 발행인 이용(스웨덴 거주) 선생과 이 목사의 만며느리인 6.15유류 준비위 대표인 박소은씨도 함께 하다.

금강산에서 1년 9개월만에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려 전쟁시기 행불자생사확인, 금강산 면회소 건설, 화상상봉,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문제 등을 다룬다고 보도되다. 남측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장석춘 사무총장과 이종렬 남북협력위원장, 유종렬, 이교식 남북교류전문위원 등이, 북측에서는 조선적십자회 최성식 부위원장, 황철 중앙위원, 리호림 부서기장 등이 대표로 참석한다.

2.4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법무법인 '덕수' 변호인단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지실에서 이장형, 강희철 조작간첩사건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열다. 이장형, 강희철씨는 1985, 1986년에 각각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를 적용받아 구속, 무기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1998년 8.15 광복절에 가석방되었음.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기고한 칼럼과 관련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6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1차 요구서를 발부하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2.5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주최로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철회 반시대적 공안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박석운 집행위원장 사회로 홍근수 평통사 대표의 여는말, 오용목 교수노조 부위원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최민희 민연련 사무총장, 문경식 전농의장, 향린교회 조한성 목사 등 규탄발언과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탐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58회 목요일집회를 열다. 여는말 조순덕 상임의장, 8.15사면으로 출소한 양심수 전철현의 고천만, 이태선 출신인사, 이관복 선생의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규탄발언, 최민희 민연련 사무총장의 x-파일 수사 촉구 발언 등이 있었음.

2.6

제11차 이산가족상봉이 금강산에서 열려 남측의 99명이 북측 가족 235명을 28일까지 상봉모임을 갖게되고 29일부터 31일까지 북측의 100명이 남측가족 430명을 만나게 된다.

지난 23~25일까지 금강산에 열린 제6차 적십자회담은 전쟁시기 이후

등 행불자의 생사 확인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담을 마쳤다.

- 미대사관 앞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통일연대, 평통사 등은 개성공단 연결전화 전송장비 반출에 미국의 간섭과 통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참석자들은 남북협력사업을 가로막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불평등하고 시대역행적인 전략 물자 및 기술자로 보호에 관한 한미양해각서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다.

27-----

- 용산 미군기지 5번문앞에서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는 공동으로 '6차 반미반전 월례공동행동'을 진행하다. 참가자들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거를 촉구했으며 단일기를 매단 줄을 미군기지가 있는 가로수에 연결하는 상징의식을 벌이다.

- 음시롱감시롱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송금숙 회원이 운영하는 오리고기 전문요리집에서 8월모임을 갖고 가을기행문제와 회원들 소식을 나누다.

28-----

- 제16회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북측 선수단 20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장선장 조선체육연맹 서기장을 단장으로 임원 12명과 선수 8명이 함께 했고 청년학생 협력단 125명은 31일 들어올 예정이다. 공항에서는 인천광역시 정영수 정무부시장 등이 마중하다.

29-----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와 역사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1차 보고회'를 갖다. 경술국치일을 맞아 발표된 3090명이 명단에는 독립군을 토벌한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방응모, 김성수, 홍진기 등 조선, 동아, 중앙일보의 전 사장들, 백낙준, 김활란, 유진우 등 사립대 전 총장들이 포함되고 있으며 을사늑약(1905), 한일합병조약(1910)체결을 주도한 이완용 등 매국노 133명, 중추원 참의 이상관직 320, 일본 제국의회 요원, 황국신민회에 앞장선 관료, 경찰, 종교, 문학, 음악, 미술, 공연예술, 교육, 학문, 언론, 전쟁협력, 친일단체 주요인물들이 들어 있었음.

- 제11차 이산가족상봉행사 2차 상봉이 금강산에서 열려 이날 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하여 환영만찬이 온정각 휴게소에서 있었음.

- 서울 정동 성공회 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열린평화포럼'이 주최한 월례 열린평화세미나가 열려 '북핵문제의 본질과 한반도 평화'란 주제로 리영희 교수의 강연이 있었음. 리 교수는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협정을 어기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며 계속 주둔하면서 신 무기를 들여오는 전력증강을 했으며 1967년에는 핵무기까지 들여왔었고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갖지 않은 나라에 핵무기 공격위협을 할 수 없게 된 핵확산 금지조약을 어기고 이북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공언히 선언했다-북핵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력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설명하다.

30-----

- 강남구 반포동 기획예산처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국방예산 삭감 촉구

집회'를 열다. 국방부가 2006년 국방예산 요구액을 올해보다 12%증액한 23조 322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것과 관련,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삭감을 촉구하다. 국방부의 조기경보통제기, 다목적 정찰위성, 고고도유인정찰기, 군위성통신, F-15K전폭기 등 동포를 죽이는 첨단무기증강계획 등을 규탄하다. 박석본 총무국장, 임종철 대표 등의 삭감 촉구 발언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변양군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이 있었음.

- 민주노조활동과 관련 부당하게 구속되어 수감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옥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슬픔을 당했던 데 이어 지난 27일 또다시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이미 장례식을 마친 뒤 귀휴로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권오현 후원회대표가 김 위원장을 만나 부친상에 대한 조문을 했습니다.

31-----

- 민기협 사무실에서 민기협 운영위원회를 열다. 양심수 석방운동 등 활동 보고와 재정보고가 있었고 국가보안법 폐기운동,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운동, 조작간첩 진상규명 운동, 민기협 20주년 기념인권코서트 등 안건 토의가 있었음.

-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강당에서 추모연대 주관, 통일뉴스와 (주)포넌비즈 등 후원으로 '분단 60년 통일열사 희생자 재조명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열리다. 박종기 추모연대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장현일 추모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조영건 경남대 교수의 '통일열사의 재조명과 추모의 길'이란 주제의 제1발제가 있었고 이어 정기열 성공회대 교수의 '통일열사 희생자들의 추모 및 정신계승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란 발제문발표에 이어 권낙기 통일광장 공동대표,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 김택진 추모연대 통일위원장의 지정토론이 있었음.

- 금강산(고성군 오정리 조포마을)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교류의 상징이 될 금강산 면회소 착공식이 있었음. 면회소는 부지 15,000평에 건평 6,000평 규모 지하1층 지상 12층으로 지어진다고 하다.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장재언 조선적십자회위원장의 착공사 등이 있었고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대, 박재완 국회보건복지부 위원장,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 등이 함께 했음.

-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제16회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개회식이 선수단과 관중 5만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리다. 남북선수단은 KOREA라는 이름으로 단일기를 들고 함께 입장했으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마라톤에 우승한 북측의 함봉실 선수와 남측의 이봉주 선수가 함께 성화를 점화하다. 또한 이날 오후에 고려민항 편으로 들어온 북측 청년학생협력단 125명이 환영식을 갖고 개회식에 함께하다.